

崔曙海 小說 研究

이를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康 大 成

指導教授 金 永 和

1983年 7月 日

康大成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主審 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인

副審 _____ 인

副審 _____ 인

1983年 7月 日

目 次

| | |
|--------------------------|----|
| I. 序 言 | 1 |
| 一. 研究의 目的 | 1 |
| 二. 研究方法과 範圍 | 2 |
| II. 生涯와 文學 | 4 |
| 一. 生活과 文學 | 4 |
| 二. 時代와 文學 | 6 |
| 三. 카프와의 關係 | 8 |
| III. 作品分析 | 13 |
| 一. 作品의 類型 | 13 |
| 二. 프로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 15 |
| 三. 貧窮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 18 |
| 四. 民族主義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 21 |
| 1. 人道主義 文學 | 21 |
| 2. 抗日文學 | 25 |
| 五. 構造와 技法 | 32 |
| 1. 主 題 | 32 |
| 2. 人 物 | 36 |
| 3. 構 成 | 39 |
| 4. 文 體 | 43 |
| 5. 視 點 | 47 |
| IV. 結 語 | 50 |
| o 參考文獻 | 51 |
| o 附錄 作品年譜 | 54 |
| o 英文抄錄 | 59 |

I . 序 言

一. 研究의 目的

曙海 崔鶴松은 1924年 短篇小說 「故國」이 <朝鮮文壇>에 入選됨으로써 文壇에 데뷔하여 金東仁, 廉尙燮, 玄鎭健, 羅稻香 등과 함께 20年代를 精力的으로 活動한 作家다.

20年代는 曙海 個人에게도 貧窮의 연속이었고 우리 民族에게 있어서도 窮乏으로 大變되는 때여서 曙海는 이것을 그의 文學속에 다루고 있다. 또한 韓國 現代小說의 發達로 볼 때 極히 重要的 時期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時代的 狀況에서 曙海의 作品을 分析 把握하는 일은 韓國 現代文學에서 하나의 작은 領域을 照明하는 길이 될 것이다. 이 時代에 曙海가 대처해야 했던 여러 가지 問題들을 하나 하나 檢討해 보고 可能的 曙海의 모든 作品을 對象으로 多角的이고 總體的인 面에서 研究해 볼 必要가 있다.

지금까지의 曙海研究는 傾向文學 또는 프로文學¹⁾이라는 것과 貧窮文學²⁾이라는 두 가지 見解로 要約되는 것 같다. 그래서 프로文學의 性格이 없는 作品은 거의 照明을 받지 못했고 每日申報에 入社했다는 私的 事實 때문에 그의 後期作品³⁾이 度外視되고 있어서 本稿의 研究는 이 貧窮의 文學, 프로文學으로서의 研究를 바탕으로 어떻게 定著을 시켜야 하고 具體적으로 어떤 評價를 해야 하는 問題가 再論

(註) 1) 筆者가 이 方向으로의 研究史를 다음과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었다.

(1) 林和: 朝鮮文學史論序說(24), 朝鮮 中央日報, 1935.11.12

(2) 金臺後: 朝鮮小說發達史, 三千里, 1936.1

(3) 安含光: 崔曙海論, 朝鮮作家 同盟出版社, 1956

(4)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 思想界 65, 1958.12

(5) 金宇鍾: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1968

(6) 白鐵: 新文學思潮史, 新丘文化社, 1968

(7) 林鍾國: 韓國文學의 社會史, 正音社, 1974

(8) 柳在攀: 崔曙海研究, 東國大學院 碩士論文, 1977

(9) 李在銑: 韓國短篇小說 研究, 一湖閣, 1975

(10) 趙演鉉: 韓國現代文學史, 成文閣, 1969

2) 이 方向으로의 研究史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1) 金允植, 김현: 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2) 申春浩: 韓國 貧窮文學의 두 樣相, 高大碩士論文, 1973

(3) 蔡燾: 1920年代 韓國作家 研究, 一志社, 1976

(4) 金東仁: 韓國近代小說考, 東仁全集 八卷, 弘字出版社, 1964

3) 筆者가 追究하려는 人道主義 文學을 여기서 많이 다루어야 함.

되어야 하겠기에 이를 直接 民族主義 내지 人道主義 文學이라는 側面에서 研究하고자 한다.

아울러서 曙海小説의 技法을 考察하고 이런 技法이 그의 民族主義文學의 傾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效果的이었는가를 찾아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二. 研究의 方法과 그 範圍

任軒求⁴⁾은 앞으로 曙海文學의 正當한 歷史的인 評價를 위해서는 프로文學과는 理論的으로 差異가 있고 當時 프로文學 理論家들의 主張에 너무 同調하면 그를 結局 批判的 리얼리스트로 볼 수 없게 만들고 玄鎮健 - 崔曙海 - 金裕貞등으로 이어지는 批判的 리얼리즘의 理論形成問題등을 들추고 있다.

筆者는 이를 參考하면서 曙海文學의 民族主義文學으로서의 價値를 重要하게 다루려고 한다.

보통 作家에 대한 研究는 資料蒐集과 作品年譜의 整理, 作家의 傳記的 研究, 作品分析의 세 段階를 取하고 있는데 玄吉彦 教授는 作家研究는 어디까지나 個個의 作品에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그것을 바탕으로 作家와 時代狀況과를 綜合하여 人間의 文學的 眞實을 解明해 놓아야 한다.⁵⁾라고 말하고 있어 역시 曙海文學研究도 이 方法을 選擇하기로 한다.

오늘날 曙海가 몇 편의 作品을 남겼으며 언제 어떠한 雜誌에 發表했었는가에 대해 正確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曙海가 활약하고 있을 무렵의 雜誌類는 모두 稀貴本이어서 完全無缺한 曙海論은 極히 어려운 일이지만 曙海와 그의 文學은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많은 研究거리를 提供해 줄 것으로 期待되며 筆者는 曙海作品의 資料蒐集과 作品年譜는 最大限으로 發掘하여 지금까지의 未備된 점을 얼마간 보충해 놓았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作品이 나타날 可能性이 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曙海에 대한 傳記的 研究는 그의 作品이 自叙傳的 性格을 띠기 때문에 殖民地時代를 가장 뼈저리게 살다 간 立場에서 그 事實이 作品에 따라 어떠한 形態로 反映되고 있는가를 追究해 나갔다. 曙海는 經驗없는 것을 쓰지 않는다 할 만큼 그의 傳記的 研究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그의 文學精神의 가장 明白한 源泉이 되는 生涯의 傳記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 先行되어야 할 것임엔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의 生活과 文學, 時代와 文學, 그리고 카프와의 關係를 論했다.

다음 作品分析은 주로 作家 現實意識이 作品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着점을 두어 일단은 作品의 類型의 分類를 하고 프로文學, 貧窮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註 : 4) 任軒永 : 韓國近代小説의 探究, 汎友社, 1974. P 123

5) 玄吉彦 : 羅稻香의 小説 - 考察, 濟州大 論文集 13輯, 1981. P 89

을 바탕으로 하되 그의 民族主義文學의 기반이 되고 있는 人道主義, 抗日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을 強烈히 부각시켜 論하고 主題, 人物, 構成, 文體, 視點등에서 民族主義文學에 초점을 맞춰 構造와 技法을 論했다.



Ⅱ. 生涯와 文學

曙海의 文學은 어느 作家보다 더 그 生涯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曙海의 生涯를 모르고 曙海를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의 生涯를 통한 人道主義 成格을 民族主義的인 面을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一. 生活과 文學

崔曙海는 1901年1月20日 咸比 城律 臨溟에서 태어났다. 父親의 이름은 資料가 없어 崔氏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어머니 金능생 사이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가난이 뒤따라서 中學校 以上은 다닌 적이 없다. 文學修業을 獨學으로 하면서 新教育을 받지 못했다. 그의 作中人物들 중에 高等教育을 받은 人物이 別로 눈에 띄지 않는 것도 그의 學閥에서 오는 콤플렉스로 관련지워 생각할 수 있다. 그의 作品 餞迓辭는 그의 自叙傳을 彷彿케 하는 場面이 줄거리를 이룬 것으로, 曙海의 소년시절을 암시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너를 장가두 못보내구 내가 죽겠구나!” 이것이 이때 어머니의 큰 걱정이었으나 나는 그와 反對로 늙은 어머니에게 조밥이나마 배불리 대접치 못하는 것과 남들과 같이 서울로 工夫 못가는 것이 큰 苦痛이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文藝를 즐기어서 그 面에 뜻을 두고 工夫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옛적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신 어머니의 感化라고 믿읍니다.

그의 生涯는 32세의 짧은 나이에 끝났다. 胃病 수술을 하다가 出血이 너무 심해 李益相, 朴祥燁等 여러 親舊들의 輸血에도 불구하고 한많은 숨을 거두었으니 最初 文人葬으로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혔다. 너무도 짧은 曙海一生의 눈물겨운 遍歷이었다.

그의 三週忌에서 그의 親友 朴祥燁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¹⁾

어떤때는 상투잡이가 되어 나무바리장수도 하여 보고 山으로 나무하러 갔다고 되놈한테 붙들리어 죽을 고비도 넘겨 보고 두부장수도 하여 보고 노동판에서 什長노릇을 하여 보고 ××단에 따라다니노라고 총을 메고 눈썹인 얼음벌판도 헤메이다가 총에 맞아

註： 1) 金容誠： 韓國現代文學史探訪， 國民書館， 1973. P 180 재인용

죽은 동지의 屍體를 혼자서 얼음벌판에서 밤을 새워가며 지켜보기 등등 이러한 몇 가지 實例를 보더라도 曙海는 한 개의 小說的 人間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曙海의 눈물겨운 一生을 펼치면서도 獨立運動에 참여하는 生涯가 그려지고 있다. 그의 生涯에서 結婚의 問題가 作品에 영향을 준다. 結婚의 失敗에서 오는 여러가지 우여곡절이 作品속을 헤치며 그의 人間性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아버지를 어렸을 때 여의고 어머니, 누이와 살았기 때문에 그의 作品에서 女性偏向이 심했고 어머니의 모습은 全作品에 登場하며 이는 어디까지나 肯定的이다. 항상 어머니는 偉大한 분이고 姑婦間的 葛藤이 없다. 누이동생이 登場하는 作品 - <가난한 아내>, <해돋이>, <누이동생을 따라>, <號外時代> - 은 있으나 男子兄弟가 登場하는 作品이 한篇도 없다는 것도 家庭環境의 反映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무엇인가 그리워 하고 동경하였다.

曙海는 두 딸의 죽음에서도 상당한 충격을 받아 實名小說<白琴>을 썼고 이 속에 그의 日記가 삽입되어 있다.

甲子 10月30日 晴 小寒

나는 중이 됐다.

장삼을 입고 가사를 메고 목탁을 드니 훌륭한 중일세!

세상에 나더러 귀찮아서 山門에 들었거니 믿는다 하하하

참말 내가 중인가 하하하

둘째 딸이 죽었을 때는 小品 <산 사람의 마음 위로>를 남겼고 <담요>도 白琴을 모델로 한 作品이다. 자식에 대한 罪責感이나 어머니에 대한 罪意識이 곳곳에 나타나며 家族들의 피로움을 술회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性格上에서 오는 影響力도 컸다. 豪放하고 너털웃음으로 쾌활한 듯하지만 內面으로는 늘 世上을 悲觀했던 것 같다. 그리고 줄곧 理想的인 戀愛를 못하고 文學的 理想을 實現시킬 수 있는 自身을 二律背反的으로 나타냈고 여기에서 理想과 現實 사이에서 葛藤을 일으키고 故郷에 安住하지 못해 彷徨하게 된 것도 空想의 世界에서 理想을 實現시키려 했던 것이다.

그는 漢成 卷番의 기생잡지 편집까지 맡기도 했다.²⁾ 바로 그의 作品속에 玉石이 마구 뒤섞인 것은 食生活을 解決하기 위하여 作品을 量産해서 商品化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 서울에서의 職場生活도 曙海文學에 反映된다. 「朝鮮文壇」에서의 生活은 그에게는 가장 뜻있는 時期였고 特히 記者生活에서의 體驗을 素材로 <序幕> <轉機> <無名草>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에서 月給을 받지 못해 안달하는 雜誌

註 : 2) 金炳翼 : 韓國文壇史, 一志社, 1980. P 121

社 社員들의 처량한 모습들을 잘 묘사하고 있다.

「曙海와 그의 劇的 生涯」³⁾에서는 그의 民族主義的인 人道性이 많이 發見되고 있어 그의 生涯도 그의 民族文學과 깊은 관련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二. 時代와 文學

먼저 金炳翼의 「曙海 崔鶴松」⁴⁾을 인용해 본다.

日本으로 부터 社會主義 思想이 흘러 들어오고, 留學生 文人들에 의해 傾向派 文學論이 대두될 즈음, 보통학교도 채 卒業하지 못하고 間島를 방황하던 無名青年 崔鶴松의 돌연한 출현은 20年代의 文學과 現實에 重要한 意味를 갖는다. 그리고 불과 8年 동안에 發表된 50여편의 創作으로 마무리되는 그의 업적은 10여年 동안 계속되는 「論爭의 時代」에 카프의 물결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누구보다 強烈한 傾向性을 갖고, 피착취 자의 참상을 극명하게 드러내되 高度의 文學的 形成으로 수용함으로써, 뚜렷한 作品 없이 비평만 勝하던 階級文學의 無色하게 만들고 있다.

1920年代는 그의 生涯 20代로 가난속에 青年의 多感이 複合되는 時期였다. 또한 文學적으로 볼 적에 이 20年代는 3.1運動의 失敗로 民族文學의 實現이라는 至上課題를 놓고 새로운 側面에서 批判받기 시작했던 時期다. 激變하는 社會情勢와 그에 對應하는 文學의 使命感을 다른 角度에서 점검했기 때문이다. 특히 日帝의 온갖 제약속에 文學과의 關係를 考察해 볼 必要가 있다.

曙海의 文學은 이러한 時代의 社會 맥락 속에서 解釋 評價되어야 할 것이다. 曙海의 生涯를 傳記적으로 考察함과 같이 作品解釋을 爲한 정보를 획득하고 그 作業을 必要로 하기에 우선 曙海의 文學은 日帝의 植民地 政策의 時代와 관련시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日帝의 植民地 政策은 根本적으로 약탈이었고 모든 政策은 이것을 可能케 하기 爲한 것이었으며 그것은 經濟的 文化的 社會的 모든 面에 一致된다. 植民地 社會의 具體的 現實을 크게 다음의 몇 가지 項目을 들고 있다.⁵⁾

- 1) 植民地 體制의 強化로 인한 土地調查 結果 韓國農民의 貧窮化가 20年代 以後 급격히 증가
- 2) 또한 文化政治를 표방한 사이토오 총독 時代의 都市生活의 窮乏化는 노동쟁의를 발생
- 3) 民族資本은 이미 崩壞한지 오래였으며
- 4) 漁業領을 制定 韓國 水産業에 對한 植民地的 재편성을 단행하였으며
- 5) 안민, 신민회 사건 以後 3.1運動, 女性運動, 學生運動, 勞動運動 등의 抗日運動이 일어남.

註： 3) 朴祥燁：朝鮮文壇 第四卷 4號, 1935

4) 金炳翼：前掲書, P.119

5) 洪以燮：韓國現代精神史의 課題, 文學과 知性通卷 2號, P. 278

日本 植民地主義者들은 1910年 韓日合併이래 土地調査라는 名目으로 土地收奪을 감행하여 1918年에는 상당량의 土地를 朝鮮農民들로부터 빼앗는다. 韓國 農民의 貧窮化는 土地調査가 實施된 以後 自作農에서 小作農으로 떨어지고 1920年代에 접어들면서 더욱 확대되어 우리 朝鮮 農民은 完全 窮乏 狀態로 몰리게 된다. 게다가 舍音과 農監의 횡포로 小作地까지 잃어버린 多數의 農民은 農業勞動者로 轉落하거나 飢餓線上에서 방황하던 나머지 離農 移住民이 된다. 農民 離村은 都市의 潛在 失業群, 滿洲移住, 日本密航 火田民의 現象으로 나타난다. 6)

여기에다 世界의 經濟恐慌, 日本의 不景氣, 朝鮮地域의 農業恐慌이 빚어낸 植民地의 零細工業의 萎縮, 主로 朝鮮人 經營의 群小工場의 沒落등은 그나마 極小의 就業 勞動者들을 失業으로 몰아 7) 日本人에게 住宅을 빼앗긴 都市人들은 번두리로, 빈민굴로 쫓겨나고 한편 滿洲로 移住한 朝鮮農民의 大多數는 滿洲人 地主들의 農奴와 다름없이 되어가고 있어 갖은 風霜에 찌드는 生活을 해야 했다. 그리하여 作家와 現實과의 對決이란 問題는 重視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점을 認識한 作家가 바로 曙海라 할 수 있다.

曙海는 滿洲에서의 放浪生活로 歸國後에서도 이어지는 無秩序한 社會의 분위기가 文學作品 活動을 통한 民族運動으로 발산된 것이다.

20年代의 植民地的인 조건에서 窮乏과 飢餓와 對決하고 植民地 現實로의 民族的 窮乏化와 飢餓와 싸웠던 曙海는 그 經驗을 그의 文學的 世界의 意識으로 살렸다. 그의 精神 - 作品에는 總督府 檢閱이라는 制約이 있었으나 그러한 植民地的인 전체 조건을 넘어서려는 苦闘가 드러나 있었고 그것은 그의 生活에 집착할 수 없게 하였으며 끝내 그의 짧은 生의 斷絶을 가져왔다.

曙海文學에서의 流浪과 脫出의 意味는 文學이 주어진 現實을 묘사하는 同時에 文學 自體가 有力한 社會現象이 되어진다는 文學의 反映的 機能과 能動的 現實 變모의 機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文學속의 現實이 萬人의 共感共有할 수 있는 典型的인 現實인 以上 曙海의 主觀的 體驗에 의하여 典型화된 現實로서의 1920年代는 우리 文學史의 現實로서 生成力을 유지하여 時間의 間격을 넘어 오늘의 우리 文學에 影響을 주고 있다.

以上에서 살핀 바와 같이 1920年代는 우리 朝鮮人에게는 窮乏의 극대화와 社會 構造의 모순이었다. 그의 作品속의 移民 또는 移農은 한마디로 民族的인 反抗이기도 했다.

自己가 지은 쌀을 헐값에 팔고 비싼 조를 사먹어야 하는 被支配民族으로서 人間的 屈從과 經濟的 窮乏으로 인한 移農現象과 自己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間島로의 移住를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註： 6)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湖閣， 1977. PP 407-422 參照

7) 洪以燮： 1930年代初의 農村과 沈霖文學， 創作과 批評七卷 3號， 1972. 가을. P 581

내가 故郷을 떠나 間島로 간 것은 너무도 절박한 生活에 시들은 몸에 새 힘을 얻을까 하여 새 希望을 품고 새 世界를 동경하여 떠난 것도 君이 아는 事實이다.

—〈脱出記〉에서—

언제나 이놈의 小作人 노릇을 면하여 볼까? 경기도에서도 小作人 生活 十年에 겨족만 보다가 그것도 自由롭지 못하여 남부여대로 딸 하나 앞세우고 이 西間島로 찾아들었더니 여기서도 그네를 맞아주는 것은 지팡살이(小作人)였다. 이름만 달랐지 역시 小作人이다.

—〈紅焰〉에서—

바로 3.1運動이 일어나던 해 봄이었다. 그는 西間島로 갔었다.

—〈故國〉에서—

白琴이는 내가 스물 한살때 즉, 신유년 7월 22일에 西間島에서 나온 딸이다.

—〈白琴〉에서—

間島는 절박한 生活에 시들은 사람들의 避難處였고 이것은 曙海 自身の 流浪 體驗에 의한 것과 植民地 時代의 民族 窮乏化로 인한 移民 現象을 反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1920年代 文壇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을 李丙烈은⁸⁾ 3.1運動後 프로文學의 退潮를 보인 滿洲事變에 이르기까지 우후죽순격으로 對立과 反撥속에서나마 文壇生活이 活發했었다는 것도 日帝의 文化政治를 표방한 허울좋은 압제하에서 우리 文人들의 몸부림이었다는 事實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強調하고 있다.

三. 카프와의 關係



1920年 부터 社會主義理論이 國內에 과급됨으로써 이른바 無產階級의 싸이 트기 시작했다. 當時 國民들의 反日思想과 民族意識이 매우 強烈했기 때문에 社會運動은 民族主義運動에 便乘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1921年께부터 民族主義運動과 社會主義運動은 점차 分裂의 樣相을 띠기 시작했고 1922年부터는 여러 社會團體가 創立되기 시작하여 社會運動에 박차를 加하게 되었다.

이러한 社會情勢의 推移에서 文壇에서는 1922年頃 新傾向派 文學理論이 發生하여 急進的인 勢力으로 번져 나갔다. 원래 이것은 처음에는 藝術至上主義 文學에 대한 反動의 文學인데 自然發生的인 휴머니즘의 動機였다. 그러나 理論이 旺盛한 데 비해 曙海가 出現함으로써 비로소 作品內容의 方向이 提示된 것이다.

이러한 社會主義文學은 1925年 카프의 結成을 계기로 勢力이 점점 확고해지고 個人的인 自然發生的인 反抗文學에서 集團的인 階級意識文學으로 변모된 것이다. 當時 曙海와의 貧窮化 현상을 다룬 作品과 韓國의 知識人, 勞動者, 農民의 悲慘한 生活을 다룬 것들을 新傾向派文學이라 불렀고 이에 대해 白鐵도⁹⁾ 新傾向派의 主要한

註 : 8) 李丙烈 : 曙海 崔鶴松 研究 高大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80. P 28

9) 白鐵, 李秉岐 : 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PP 336-339 參照.

作家로는 워니워니 해도 曙海를 들고 있으며 그 特色을 첫째, 그것이 다른 題材에서 볼 때에 그것은 하나의 貧窮文學이다. 둘째, 作品內容의 反抗的 要素가 다분하다. 셋째, 그 反抗의 主題性과 관련이 되는데 新傾向派의 作品은 으레히 끝에 가서는 殺人을 한다든가 放火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등을 들고 있다.

이것이 얼마 아니가서 <프로레타리아文學>, 혹은 <無産階級文學>으로 바뀌어 갔다. 이는 곧 勞動者 農民의 解放을 主題로 한 것뿐 아니라 韓國的 現實에서 民族解放을 위한 鬪爭意識이 表現된 作品의 총칭이라 할 수 있고 이 文壇의 現實이 曙海의 創作에는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하겠다.

曙海가 「KAPF」¹⁰⁾의 일원이 된 것은 結成 다음 달이었다.

카프는 PASKYOLA와 焔群社가 제휴하여 이루어진 동맹인데 發起人 朴英熙, 金基鎭을 비롯한 여러 作家가 가담했는데 여기에 分明히 曙海 崔鶴松도 가담이 되어 있고 이들 배후에서 藝術동맹을 後援하던 사람은 역시 李星泰를 비롯하여 當時의 社會主義者들이었다.

1927年1月 100餘 盟員의 參與으로 總會를 열고 再編成할 때에는 幹事職을 맡았었고 同年 8月8日 카프 全國大會 준비위원회에서 財政部를 趙重滾, 李箕永과 함께 맡았다. 그러나 그는 다만 初期에 프로레타리아적 傾向의 貧窮文學을 主로 하다가 1927年 以後 서서히 傾向을 바꾸기 시작 1929年 카프를 脫退하고 長篇小說 <號外時代>를 연재(海日)하면서부터 人道主義的 傾向으로 전환한 作家였다는 點이 注目된다.

以上の 略歷이 曙海와 카프와의 關係이다.

카프는 원래 日本에서 일기 시작한 프로文學의 거친 물결이 이 땅에 물밀듯 밀려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日本으로 부터 基本的인 理論조차 定立하지 못한 우리 文學界를 쉽사리 굴복시킬 수 있었던 이데올로기적 힘과 有産者의 착취에 反抗하는 그들의 노선이 植民地 착취에 反抗하는 民族主義者들의 態度와 혼동되는 취약성 때문이다. 11)

朝鮮文壇에 이러한 프로文學의 선풍이 불어 金基鎭, 朴英熙의 評論에서뿐만 아니라 詩와 創作에서도 범람하였다. 즉, 貧困과 反抗을 테마로 放火, 殺人, 自殺을 終結로 使用하는 프로小說이 잇달아 發表되었다. 그러나 진작 曙海의 體驗小說의 뚜렷한 評價를 그 아무도 따르지 못했다.

新傾向派文學과 프로文學은 같은 系統이면서도 서로 區別된다. 12)

前者는 막연한 反抗 곧 自然發生的인 反抗인데 反하여 後者는 明確한 組織的 政治鬪爭을 意識한 이른바 目的意識의 文學이라는 點이다.

註： 10) 1925年七月 結成

11) 金炳翼：前掲書，P 121

12) 金基鎭：韓國文學論巧－潮閣， 1972， P 160

이 프로文學은 大部分 이데올로기 과잉이 빛은 생경한 觀念으로 造作되었거나 安易한 圖式性에 빠진 저급한 宣傳文學으로 後退한다. 이럴 때 金基鎭과 朴英熙 間에 有名한 “小說建築說” 論爭이 생겼다.

金基鎭은 朴英熙의 創作<徹夜>, <地獄巡禮>를 評하는 대목에서 프로文學의 疇점을 짚었다. 13)

作家는 ... 우리는 貧困하다. 無産階級者다. 無産階級은 他階級の 적과 鬪爭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기 爲하여 너무도 쉽사리 簡單하게 처리하였던 것이다. ... 小說이란 한 개의 建築이다. 기둥도 없이 서까래도 없이 붉은 지붕만 얹혀놓은 建築이 있는가?

이에 朴英熙는 金基鎭을 正面으로 반격하였다. 14)

프로레타리아의 作品은 君의 말과 같이 獨立된 建築物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 ... 小說로서 完全한 建物을 만들 時期는 아직은 프로文學에서도 時機尙무한 空論이다.

朝鮮 프로文學의 두 牛耳를 잡은 이 두 사람의 論爭은 도저히 和合할 수 없을 것 같은 고집이었지만 1927年 10月 八峰의 뜻밖의 降伏文書를 發表함으로써 일단 끝난다.

朴君 個人뿐 아니라 우리들의 同志의 大部分이 나의 批評的 態度에서 소위 프로文學 評家가 되기 前에 階級意識의 不分明한 點이 있는 것이 共認하는 事實이라면 마땅히 나는 同志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謝罪하고 앞날을 맹세하겠다. 15)

카프의 두 責任者 論爭은 內紛을 일으킬 우려가 있었고 梁柱東等 民族文學派의 공격을 두려워 한 나머지 끝이 난 것이다. 그러나 그 論爭은 끝났지만 카프의 中心勢力은 初期의 선구자들을 밀어내는데 成功하는 新進 社會主義 文學家들로 교체되면서 프로文學은 잇단 論爭을 통해 理論的인 진통을 수차례 겪는 과정을 밟아왔다.

註 : 13) 金八峰 : 文芸時評, 朝鮮之光, 1926.2.

14) 朴英熙 : 鬪爭期에 있는 文芸批評家의 態度, 朝鮮之光, 1927.1.

15) 炳炳翼 : 前掲書, P 129

이처럼 朝鮮의 프로文學은 自體內的 理論鬭爭이 甚하고 그 方向이 바뀌는 혼란된 과정이었다.

그 後 民族文學派와 海外文學派로 부터 계속 저항받아 온 프로文學은 朴鍾和와 같은 作家들이 民族文學 쪽으로 方向을 바꾸었으며 傾向文學論을 주장한 曙海 自身도 어디까지나 民族文學人 쪽이었다.

이같은 카프의 退潮 現象 속에 日帝의 軍國體制 強化를 계기로 總督府의 노골적인 탄압이 시작된다. 事實上 프로文學이 그 勢力을 잃은 것은 1931年부터다. 이 해 9월에 日帝가 大陸侵略의 첫걸음으로 滿洲事變을 일으켰는데 그 무렵 日帝는 勞動爭議 民族運動에 政治的 탄압을 加하던 때여서 돌연 5월에 카프의 檢學事件이 있었던 것이다. 즉 이달에 民族單一黨이던 新幹會가 解消되자 解消라는 것은 공산당을 組織하는 것이라고 解釋한 日警은 解消論者들을 檢學하기 시작함과 아울러 카프 會員도 幹部 以下 總檢學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 事件은 金南天을 빼놓고 모두 結局 不起訴로 釋放되었으나 여기서 카프 陳營은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16)

曙海는 이 즈음은 勿論이지만 그 前에도 事實上 카프 組織에 참여했으면서도 카프의 事業에는 그렇게 熱과 誠意를 다한 것은 아니었다. 當時 비교적 親했던 朴英熙는 曙海의 行跡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述懷하고 있다. 17)

어느 때 내가 君과 알게 되었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으나 아마 君이 「朝鮮文壇」을 編輯하였을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개는 옳으리라고 생각한다. 나는 君에게 자주 놀러 갔었다. 그리하여 그를 기어코 <카프>에 끌어 넣었다. 사람 좋은 君은 그다지 사양하거나 反對하지 않고 곧 入會를 하였다. 그러나 君은 勿論 <카프>의 여러가지 政策에는 感心하지 않았었다. 그는 「좀 그러면 어때우?」하는 말을 늘 하였는데 그 말은 그저 그러저럭 원만히 하자는 뜻이었고 너무 黨派的인데 對한 부드러운 抗議이기도 했다 -中略- 그 때 카프의 처지로 보면 君의 態度에 對하여 그 不透明한 點을 늘 指摘했다

늘 가난을 解決하기에 급급한 曙海로서는 文壇의 理論 鬭爭을 한다는 게 좀 우수꽝스러운 장난으로 보였는지 모르지만 그러한 曙海를 카프에서는 妓生을 取材하여 小說을 썼다고 物議를 作成하고 同盟機關紙가 아닌 新聞 雜誌에 글을 썼다고 誹謗을 하며 괴롭혔다. 그러나 決定的으로 카프와의 관계를 결렬시킨 것은 曙海의 「每日申報」入社問題였다. 카프에서는 술한 말쟁이 있었고 曙海 自身도 먹어야 살 게

註： 16) 金基鉉：前掲書，P 161

17) 朴英熙：初創期の 文壇側面史，現代文學 64，1960.4. PP 221-222

아니냐는 自身の 처지를 解明해야 했고 結局 그는 自意半 他意半 카프를 脱退하게 된 것이다.

曙海가 카프에서 除名되었을 때의 狀況을 理解하는데 金東仁의 記錄도 參考가 된다. 18)

그가 「中外日報」에서 「每日申報」로 轉勤할 때 프로 芸術聯盟에서는 술한 말썽이 있었고 급기야는 그는 “먹고야 산다”는 한 마디 對答으로 除名을 달게 받았다. 지금 그는 作品의 題材 및 取扱内容を 制限하는 프로연맹에서도 除名을 당하였다. 따라서 그가 選擇한 題材의 範圍는 넓어졌다.

曙海는 理念보다는 生活을 重視한 것이며 自己는 결코 프로文學의 盲從者가 아니라는 事實을 意味하는 것이었으며 그 後 프로文學의 色彩를 完全히 벗어 버렸다 그러나 曙海 自身도 自己도 프로 文學家라고 自處했 듯이 文學活動에 도움을 준 것만은 否認할 수 없다. 다만 노골적인 프로作家가 아니라 프로作家인 것 같은 <의사>등 몇 편의 作品 外에는 部分的인 프로意識이 나타났을 뿐이며 카프와의 관계도 다른 프로作家와는 相異한 점이 많다.

曙海는 카프의 一員이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나셨던 그런 立場이었는지 모른다.

註: 18) 金東仁 : 作家四人, 每日申報, 1983.1.8.

Ⅲ. 作 品 分 析

前項에서 그의 生涯와 文學과의 關係를 살핀바 曙海自身の 體驗이 그의 作品에 상당히 反映되어 있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제 曙海文學의 참다운 價値는 自身の 體驗을 民族的인 차원으로 끌어올린데 있다 할 수 있기에 이 方面으로 作品을 分析해 봤다.

一. 作品의 類型

曙海文學을 크게 特徵짓고 있는 것은 그 類型的인 特性에 있다. 그 特異한 類型性으로 말미암아 一種의 限界點 같은 것을 쉬이 感知케 해 주고 있다.

그의 作品數는¹⁾ 1924 年에 1 편, 25 年에 8 편, 26 年에 16 편, 27 年에 4 편, 28 年에 1 편, 29 年에 4 편, 30 年에 1 편, (發表되지 않은 作品數는 4, 5 편으로 추정)으로 되어 있다. 이로 본다면 曙海가 가장 왕성한 作品活動을 한 해는 1926 年이며 <血痕>²⁾과 <紅焰>³⁾이라는 두권의 短篇小說集이 있다. 이들 短篇小說集에 실린 14 편 以外의 作品은 雜誌에 게재된 것으로 20 여 편이 있고, 未發表인 채 短篇小說集에 실린 것이 4, 5 편이나 된다. 따라서 曙海의 小說 作品數는 40 여 편이나 되는 셈이지만 찾아내기에 따라서는 더 많은 作品이 發見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作品은 크게 세 가지 類型으로 나눌수 있는데 ① 間島와 회령을 무대로 한 作品, ② 서울을 무대로 한 作品, ③ 國內農村을 背景으로 한 作品 셋이다.

첫째 類型 間島를 背景으로 한 作品은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회령을 背景으로한 경우는 間島生活 以後 大部分의 그의 主人公들이 회령으로 돌아오며(故國, 白琴等) 이들 하층민들의 窮乏을 보여준다. <무서운 印象>에서는 國內의 쌀들을 日本으로 가져가고 대신 滿洲의 콩과 조를 회령역을 통해 들어오는 것으로 植民地 狀況을 대변하는 수탈과 착취의 通路인 것이다.

이러한 第一類型에 속하는 作品의 主人公들은 小作人이거나 <紅焰> 小作도 붙이지 못하고 낱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者들이거나(吐血, 飢餓와 殺戮, 故國, 餓

註: 1) 蔡燦: 貧窮文學에서의 脫出記, 文學思想, 1974. 11. P 218

2) 血痕, 寶石半指, 朴돌의 죽음, 葉兒, 梅月, 脫出記, 鄉愁, 飢餓와 殺戮, 미치광이, 故國, 十三圓等 11 편 수록

3) 底流, 葛藤, 紅焰等 3 편 수록

逆辭) 勞働者 (무서운 印象, 拾參圓 白琴) 들이다. 이 外에도 <돌아가는 날><만두><朴돌의 죽음>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이들의 窮乏은 죽음과 殺人과 放火의 形態로 그 돌과구를 찾는다.

다음 第二類型에는 그 主人公들이 大部分 雜誌나 新聞社 記者 또는 作家와 같은 階級 知識人 계층인데 <東大門> <轉機> <아내의 자는 얼굴> <八個月> <금붕어> <葛藤> <같은길을 밟는 사람들> <落魄不遇>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棄兒>와 같이 都市의 막벌이군이 登場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第二類型 作品들의 主人公들도 第一類型과 같이 窮乏을 겪으나 前者와 같이 極限的인 行動은 나타나지 않는 게 特徵이다.

第三類型的 作品으로는 <그믐밤>과 <底流>가 있는데 이것은 曙海 作品中 特異한 것으로 封建的 잔재가 짙은 主人과 머슴 또는 農民들이 그 主人公이다. <큰물진 뒤>는 移農이 그려져 있다. 그러나 위의 作品中 各各의 要素들이 複合되어 나타나는 것이 많은데 特히 第一類型과 第二類型이 많이 複合된다 <錢逆辭>와 <白琴> 등의 作品은 現在 서울서 살고 있는 主人公 <둘.다 作家>이 過去의 回憶時節을 회상한다. 이러한 現象은 同一한 體驗의 과잉 노출로도 볼 수 있다.

이 外에 세 가지 類型에 속하지 않는 作品으로 <暴君>과 <누이동생을 따라>가 있는데 <暴君>은 作品 自體에 나타난 무대로는 國內 農村이나 다루는 問題로 보았을 때는 꼭 第三類型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며 <누이동생을 따라서>는 叙述者의 立場으로서 第二類型에 속하나 内容上으론 第一類型에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曙海文學의 大部分이 體驗만을 題材로 삼고 있다고는 하지만 間島等地에서의 經驗의 作品化 경우는 <脱出記>가 그 代表的인 例이고 여타의 作品에서는 그러한 體驗의 어느 한 部分만으로 한 作品이 構成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몹시 재미있는 現象이라 하겠다. 曙海 作品中 이러한 類型에 해당되는 作品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間島等地의 體驗임이 分명한 極限的인 貧窮만을 題材로 한 일련의 作品은 <十三圓> <살려주는 사람들> <朴돌의 죽음> <飢餓와 殺戮> <紅焰>인 反面 極限的인 貧窮을 題材로 하지 않는 일련의 作品은 <금붕어> <寶石半指> <葛藤> 등인데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曙海는 極限的인 貧窮이라는 體驗을 作品化하는데 主力하여 그 나름대로의 큰 成果를 거두었다고는 하겠으나 그는 文學的인 理論을 갖 추거나 技攻面의 수련을 쌓음이 없이 執念된 作業으로 作品을 썼다고 보겠다.

또한 그의 作品을 前期, 中期, 後期 作品으로 나누어서 家族愛에서 同類愛로, 그래서 人類愛의 人道主義的인 文學으로서의 변모를 (抗日文學에서는 同胞愛를) 그리고

있다. 이 三期의 변모과정으로 文學的 位置를 살펴보면,

第一期는 登壇을 한 1924年 前後다. 1918年 「學之光」에 發表한 散文時를 始發로 詩人이 될 수도 있었지만 詩人이라기보다는 本格的인 小說家로서의 뜻을 두고 春園의 소개로 <故國>과 <脱出記>가 各各 入選과 選外 佳作으로 뽑힌 時期다

第二期는 1925年 末로부터 1927年까지로 定해진다. 그가 「朝鮮文壇」에 入社를 하고 KAPF 結成에 加담 가장 많은 小說을 發表하여 프로文學의 理論家들에게 의해 絶찬을 받던 時期다. 新銳作家가 重鎮作家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作品活動이 가장 왕성했던 것이다. 曙海는 第二期에 小說家로서의 位置를 다졌고 文學史에서 빼놓을 수 없는 作家로 인정을 하게 되었다.

第三期는 1927年 以後 그의 唯一한 長篇인 <號外時代>의 연재가 끝나는 1931年까지다. 어느 程度 生活의 安住가 되고 따라서 카프派 盟員들로 반목과 질서를 당하고 1929年에는 그 곳을 脱退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作品을 통한 民族的 抵抗意識을 고취시켰던 時期다. 小市民的 사실주의 傾向으로 변모하여 曙海文學의 末期가 되는 것이다.

二. 프로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 傾向派文學에서 가장 우수한 創作을 發表하고 카프組織에도 참여한 曙海의 活動 거점은 어디까지나 民族文學人 쪽이었다. ”⁴⁾ 라 할 적에 果然 曙海는 프로文學과의 關係를 어느 程度로 한정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問題로 제기된다. 그래서 曙海文學은 프로文學家로서보다는 프로文學家的인 面에서 論하고 檢討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볼 때 新傾向派文學의 여부를 다음과 같은 側面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⁵⁾

첫째로 作品의 構造的 特性이 問題視되어야 한다. 둘째로 表面的인 現象으로 貧富의 問題가 아니라 貧者와 富者의 葛藤이 圖式的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 問題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 作品結末과는 別로 關係 없다는 점에서 論議되어야 한다.

이로 봤을 적에 曙海文學에서 社會主義的 色彩와는 거리가 있음을 發見해야 한다. 東仁은 曙海를 다음처럼 評한다.⁶⁾

註: 4) 金炳翼: 韓國壇史, 一志社, 1980, P 143

5) 國語國文學會: 現代小說研究, 正音社, 1982, P 143

6) 金東仁: 小說家로서의 曙海, (東仁全集) 第10卷, P 24

“ 그는 (曙海) 局限된 프로藝術家가 아니었다. 아직껏 見聞한 社會가 참담한 最低社會이고 다른 社會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自然히 그런 社會만 그렸지 그 社會만 그리는 것이 그의 目標가 아니었다.

白鐵의 「新文學史潮史」에서⁷⁾에서 叙述되었던 崔曙海의 대목을 보면 다음과 같다.

新傾向派 文學에 두 가지 타입이 있다는 것을 대조하여 懷月이나 八峯의 作品이 觀念型的인 것인데 비하여 曙海의 作品은 體驗文學이라고 命名하였다. 여기서 曙海의 프로文學이 아니라 프로文學的인 말이 나오는 것은 曙海의 프로文學은 원래 曙海가 指向하는 文學精神이 아니라는 것이다. 當時 프로文學 自體가 처음에는 「착취받는 植民地 自姓이란 抵抗感이 휴머니즘과 結合하여 생겨난 것」으로서 曙海의 文學精神과 同軌의 것이라고 할 수 있었으나 처음서부터 曙海의 作品에서 프로意識을 찾아볼 수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文學의 素材가 된 作家의 體驗이 極限의이고 想像을 뛰어넘는 世界였기 때문에 自然히 反抗的 要素를 內包하게 된 것이고 너무나도 貧窮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것에서 헤어날려는 몸부림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曙海의 作品이 發表되자 文壇은 매우 놀라운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新傾向文派文學의 총아로 군림하게 되었다.

또한 曙海 自身の 主張도 자기는 作家이지 결코 프로作家가 아니다. 自己의 體驗은 放浪과 貧困뿐이었으니 自己 作品의 主題가 그 方面으로 될 것은 勿論이나 프로作家라는 意識 아래서 創作하지를 않는다고 한 것이다. 다음 章에서 이야기 되지만 曙海文學의 根源을 이루는 文學精神은 人道主義다.

<의사>는 曙海가 프로文學的 意識을 갖고 쓴 作品이다.(1926) 主人公 金의사가 營養失調로 病이 난 貧者와 營養과잉으로 탈이 난 富者의 階級的 差異를 보고 貧者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自身の 職業에 회의를 품고 病院에 불을 지르고는 모스크바로 떠난다는 內容으로 되어 있는데 貧者가 아닌 知識人을 主人公으로 내세워 前期作品과는 다른 手法을 보이면서 目的性을 가진 階級意識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그의 客觀的인 視線을 통해 資本主義 病弊를 제거할 수 없다는 論理를 提示하고 있으며 知識과 社會主義 理想 外에 組織의 必要性을 은근히 示唆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文學意識은 카프 設立後 方向 전환을 외친 프로作家들의 鬪爭意識과는 아직 거리가 먼 것이었다.

註: 7) 白鐵: 한발 앞선 孤獨의 意味, 文學思想 (26), 1974. 11. P P 232-241 參照

<의사>에서 프로文學의 幕을 연 曙海는 그 後에도 <설 날밤> <序幕> < 아내의 자는 얼굴>等에서 프로意識의 一面을 보여주다가 <紅焰>을 發表함으로써 文壇에 一代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켰다. 이 作品은 中國人 地主와 朝鮮人 小作農의 葛藤을 그린 것으로 民族主義와 프로文學의 性格을 同時에 지니고 있는 作品이다. <葛藤>은 作家의 원숙한 筆致가 深化된 프로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이 作品에서 作家는 現實속에 엄연히 存在하는 부르조아 知識階級 搾取階級 沒落한 中産階級 賤民階級의 여러가지 類型을 보여주면서 賤民階級이 대우받을 수 있는 革命的인 世界가 倒來해야만 理想的인 社會가 이루어진다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이 作品은 有産階級과 無産階級의 對立과 鬭爭이라는 프로文學의 상투적인 手法에 의해 展開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無産階級에게 善意를 품고있는 부르조아 知識人의 思考過程을 分析하여 階級意識을 表現하려 했다는 點에서 프로文學의 圖式性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 作品의 葛藤은 몇 가지 概念을 內包하고 있다. 첫째, 理念과 行動의 差異에서 오는 葛藤이다. 어멈 첩제를 부르짖으면서도 어멈을 부리는 自身의 行動에서 矛盾과 虛偽를 發見한다. 더우기 內面的으로 그 矛盾과 虛偽를 깨달으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惰性에 對해 二重의 葛藤을 일으킴으로써 主人公으로 나온 知識人의 심각한 苦悶과 自意識의 世界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는, 理性과 感情의 不一致에서 오는 葛藤이다. 主人公은 여러가지 제슈추어로 정조를 팔아 한 世上의 영화를 누리려는 부르조아 知識階級의 女性보다 제 힘을 끝까지 쟁기삼는 어멈이 되려 사람답다고 생각하면서도 感情的으로는 탁자른 머리에 모자를 눌러쓰고 오똑한 구두의 양장 美人에게 自身의 二律背反的인 心理에 葛藤을 일으킨다. 셋째로 새로운 思想(階級思想)과 封建的 觀念의 葛藤이다. 女子解放論者로는 남에게 빠지지 않을 만큼 떠드는 主人公은 때론 家長的 觀念에 지배되어 아내에게 沒人格的 行動으로 一種의 부끄러움 같은 것을 느낀다. 또한 階級平等을 부르짖으면서도 「그러면 너는 저런 어멈이라도 아내 상기를 사양치 않을 데냐」라는 질문으로 부터 벗어나 變명만을 생각하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葛藤의 양상을 通하여 作家는 새로운 社會主義思想과 封建的 觀念이 混在해 있는 當時 朝鮮의 思想的 風土를 보여주고 있으며 프로文學의 理念에서 벗어나고 있다.

<客身難>은 社會主義 活動을 하기 위해 都會로 오는 社會主義者의 路程을 通해서 프로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먼 동이 틀 때>는 社會主義者의 信念과 그 信念을 실천으로 옮기는 過程에서 겪는 心理的 葛藤을 보여주고 있다. 社會主義 觀

念은 理念의 구호로만 끝나서는 意味가 없고 實踐을 통해서 明證해야만 비로소 生命 있는 階級哲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勿論 實踐 過程에서 狀況의 제약을 받고 葛藤이 따를 수 있으나 이를 克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作品 속에서 狀況의 제약이라 하는 것은 두 가지 側面을 지닌다. 植民地의 가난한 現實과 思想團에 對한 日警의 탄압으로서의 제약이다.

以上과 같은 曙海의 文學을 檢討해 본 結果 曙海文學을 가리켜서 프로文學이라기 보다는 프로文學的인 제슈추어를 써 본 것으로 終結짓는 게 좋겠다.

李哲範은 “가난을 크게는 階級意識으로 보느냐, 人道主義的인 面에서 보느냐, 그들의 고뇌를 통한 實存主義的인 次元에서 보느냐에 따라 文學의 內容은 달라진다. 엄격히 말하면 尙畧 리얼리즘에의 한 傾向이 아닌 그냥 리얼리즘의 범주에 속하는 文學이라 하겠다. 그것은 社會主義的 傾向文學이라고 본데서부터 理論이 誤導되기 시작했다.”⁸⁾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그의 作品 <의사>에 나타난 것을 보고 人峰으로 부터 “어찌하여 의사는 生活의 階級的 分裂의 社會에 서서 참말로 自己의 理想하는 救世濟民을 實行하여 볼 생각을 못하고 逃避하였는가? 여기에 一個의 知識人으로서의, 의사의 專志 弱行한 本色이 들어나고 만다.”⁹⁾ 라는 批判을 받았던 것이다. 이것은 프로意識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作品이라는 데서 나온 것이다. 곧 曙海는 프로作家의 흉내를 어쩔 수 없이 흉내냈어야 했던 作家라고 보는 게 좋다.

曙海의 作品에서 보이는 構造的 特性을 金允植은 “家族을 基本單位라고 하고 있어 社會를 單位로 하고 있는 傾向文學과는 판이한 양상을 지니고 富者의 非人間性에 대한 反抗이어서 社會主義者가 갖는 觀念上的 그것이 아니라 脫觀念化한 것”¹⁰⁾이며 下層階級的의 대변이라고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 論議를 뒷받침하고 있다.

三. 貧窮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曙海의 貧窮文學은 프로文學과도 相通된다. 이 가난의 問題는 間島地方을 背景으로 한(나중에는 회령까지) 初期作品에 나타나고 있음은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의 <脫出記>에서는 우리 朝鮮人의 極限的인 人間苦가 그려지고 있다.

註 : 8) 李哲範 : 韓國文學大系(中), 耕學社, 1972. P 242.

9) 二月의 創作(朝鮮之光 1926.2.1)

10) 金允植 : 韓國文學史論巧, 法文社, 1974. P 181

일년내 中國사람에게서 양식을 꾸어 먹고 도조나 타조를 얻는데야 일년 양식빛도 못될 것이고 또 나같은 시로또(素人)에게는 발을 주지 않았다.

日本人의 눈에 비친 朝鮮人은 被支配 異民族이고 中國人 立場에서 본 朝鮮人은 달갑지 않은 異邦人에 不遇한 것이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朴君의 발버둥은 곳곳에 나타나며 급기야는 現實의 矛盾에 대해 눈뜨기 시작하여 脫家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태까지 세상에 대하여 충실하였다. 어디까지든지 충실하려고 하였다. 내 어머니 내 아내까지도 -中略-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속였다. 우리의 충실을 받지 않았다. -中略- 김군! 나의 탈가한 이유를 대략 적은 것이다. -中略- 아아, 김군아, 말을 다 하였으나 짐은 그저 가슴에 넘치는구나!

마지막 인용문은 끝을 맺는 部分인데 社會에 對한 反抗意識에서 脫家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貧窮의 問題가 자식에게까지 이어져서 그 영향이 크리라는 것 때문에 貧窮의 原因이 되는 모든 制度를 淸부수기 위해 獨立團에 뛰어들었다. 作品 속에서 指稱하는 制度가 어떤 制度인가는 단언할 수 없으나 獨立團에 입단하는 것으로 보아 當時의 艱難문제를 고려한다면 植民地政策을 暗示한다고 볼 수 있다.

朴君이 벼랑 끝보다 더 험한 ××단에 가입케 된 것은 結局 個人과 社會의 對極을 하나의 世界로 合一시켜 自己世界의 實現을 하려는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 民族과 社會를 떼어낸 個人의 自己實現과 生存을 不可能하다고 認定할 적에 歷史와 社會속의 自我를 새롭게 認識한 깨달음이라 하겠다. 이런 면에서 볼 때〈脫出記〉는 國內의 窮乏現象에서 問島로 移民 그리고 獨立團 鬭爭까지 連結할 수 있는 作品이라고 귀결지을 수 있다.

이 貧窮現象은 〈脫出記〉보다 먼저 나온 作品에서도 나타난다. 事實上 〈故國〉보다 앞선 〈吐血〉에서는 異國 땅에서 極貧에 시달리는 한 家族의 모습을 통하여 悲慘한 現實을 드러내고 있다.

〈吐血〉은 曙海가 會寧시절에 쓴 것으로 曙海小說의 源泉을 探索하는데 있어서 매우 시사적인 作品이라고 생각된다. 그 한 例로 新傾向派文學을 말할 때 누구나 例示하는 「飢餓와 殺戮」도 실상은 이 「吐血」을 改作한 것이기 때문이다. 11)

註: 11) 金基鉉: 崔曙海의 初期作品, 文學과 知性, 1973.11. P 814

<故國>에서는 나운심의 行跡을 통하여 비교적 間島의 現實이 낱낱이 解剖되고 있다.

이 곳에 사는 사람은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사람이 많다. … 별별 흉한 것들이 모여서 군데 군데 부락을 이루고 사냥도 하며 목축도 하며 농사도 하며 불한당질도 한다. 그런 까닭에 윤리도 도덕도 교육도 없다. 힘 센 자가 으뜸이요, 장수며 패왕이다. 소위 경찰부장이 아편을 먹으면서 아편장수를 잡아다 때린다.

<脱出記>以後 作品에서도 貧窮의 素材는 불가피하게 따라 나선다. <朴들의 죽음>에서는 <脱出記>보다 더욱 悲慘한 現實이 그려지고 있으며 <그 刹那>는 서백리아 金鑛을 전전하는 또 하나의 移民群像을 보여주고 <異域冤魂>은 中國人 地主의 小作農이던 朝鮮人 夫婦의 沒落相을 그리는데 역시 貧窮에서 題材를 구하고 있으며 <暴君>과 <만두>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마찬가지다.

國內舞臺의 作品에도 이 貧窮은 나타나는데 <拾參圓> <棄兒> <큰물진뒤편> <五圓七十五錢> <설날밤> <白琴> <누가 亡하나> <八個月> <紅恨錄愁> <무서운 印象> <아내의 자는 얼굴> <落魄不遇> <餞迓辭> <序幕> <담요>등에서 엿보인다. 이들 作品에서는 都市勞働者 및 知識人의 貧窮을 보여주고 있는데 都市勞働者는 大部分이 農村에서 農土를 빼앗기고 都市勞働者로 전락한 人物들이다. 離農民이 都市勞働者로서의 모습을 強烈하게 추적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모두가 삶을 영위하기 위한 勞働者의 悲劇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들 作品에서는 農土를 잃은 都市勞働者와 失業者를 통해 殖民地 國內의 暗澹한 現實을 告發하고 있고, 家族을 單位로 하고 있는 間島 背景의 作品과는 달리 그 대상을 확대시켜 乞人, 記者, 賣春婦, 勞働者 등을 그리고 있으며, 그래서 家族愛에서, 同類愛로 發展하고 있다. 또한 雜誌社記者 같은 知識人들은 그 社會內에서 自己認識의 깊은 意味를 깨닫게 하는 人物의 구실을 하며 富裕層의 非人間性을 폭로하고 그들에 대한 反抗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以上 曙海의 貧窮文學을 間島와 國內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曙海는 눈물겨웠던 自己 生涯를 밀천삼아 平生을 貧窮에 대한 반역으로 살았다. 그러나 曙海의 作品에는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착하고 사랑에 넘친 家庭을 찾아 볼 수도 있고 그

러다가 그 댓가가 없이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 할 때 殺人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거나 강도질을 하는 것은 果然 어떻게 解釋해야만 하는지가 의문이다. 하지만 그 主人公들이 가난을 뚜렷이 階級意識으로 받아들이고 階級鬭爭의 앞장에서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金永和 教授는 이 貧窮의 狀態를 세 樣相으로 포착하고 있다. ¹²⁾ 첫째 < 脱出記 > 등의 間島로 流浪을 떠난 流浪民들의 問題, 둘째 < 朴돌의 죽음 > 등 大體로 咸鏡道 地方을 中心으로 한 無識한 極貧者들의 生活의 樣相, 셋째, <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 등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雜誌社 일을 보거나 글을 쓰는 人物들의 生活 樣相이 바로 그것이다.

結局 20年代 植民地朝鮮의 現實을 貧窮이라는 側面에서 살피게 된 것도 曙海와 貧窮의 問題를 연결시킨 것이다.

아름든 最近에 와서 曙海의 文學을 貧窮文學이 아닌 다른 角度에서 살피는 傾向에 筆者 自身도 同意하면서도 어느 程度의 貧窮文學은 인정하고 들어가야 할 것 같다.

四. 民族主義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本稿의 主題가 될 수 있는 民族主義 文學을 두 側面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人道主義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曙海文學은 1929年 카프 脱退 前後로 人道主義로 本格的인 方向을 바꾸는데 元來가 曙海文學의 根源은 人道主義라 하겠다. 위에서 이야기 한 프로文學이나 貧窮文學도 따지고 보면 이 人道主義에서 싹튼 것이다. 前期作品에서 나타나는 社會에 대한 反抗과 詛呪는 家族愛에서 비롯된 것이며 中期作品에 와서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同類愛로, 後期作品에 와서는 人類愛로, 抗日文學은 同胞愛다.

曙海의 美學은 春園의 새로운 旗幟인 人道主義를 바탕으로 한 新理想主義로 向하고 있었으며 人生生活의 깊은 기쁨과 엄숙한 意味를 題材로 하여 小說의 主題를 삼고 있다. 말하자면 曙海의 美學은 20年代 초반에 우리 文壇에 流行한 소위 藝術을 위한 藝術의 퇴폐성과 惡魔主義 혹은 自然主義에 혐오감을 가지면서 人生에게 살 힘을 줄 春園系列의 理想主義를 계승한 變種이라 하겠다. ¹³⁾

註 : 12) 金永和; 現代韓國小說의 構造, 泰光文化社, 1977. P 42-50 參照.

13) 春園 : 우리文芸의 方向, 朝鮮文壇, 1925.11. P 87

그러므로 曙海는 春園의 理念을 具體的으로 다른 面에서 실현하고서 時代에 反逆하면서 熱情的인 生活을 小說로 深化시켰다. 즉, 참 人間의 참生活이라는 正直한 作家態度를 지녔던 것이다. 그러기에 小說技法 文體 部分에서도 검토되겠지만 울음이 많이 섞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人道主義 作品으로는 <人情> <境界線> <주인아씨> <無名草>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누이동생을 따라> 그리고 長篇 <號外時代>等이다. <人情>에서 “승현”은 외투를 훔치러 온 지게꾼에 양산대로 찢르다가 그 꼭지에 찢려 눈이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罪意識에 몸부림치는 모습에서 승현을 더욱 善良한 人間으로 浮上시키고 있다. <境界線>은 副題가 <性慾과 道德>으로서 題目이 示唆하는 바와 같이 男女의 性慾과 道德의 葛藤을 그리고 있다. 暴君같은 男便과 전실자식과 며느리의 눈치까지 보아가며 살아야 하는 封建的 因習의 희생자인 젊은 女人은 自身을 理解해 주는 젊은 男性이 나타나자 짝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女人의 執拗한 사랑의 慾求는 만족하지 못하고 道德에 얽매인 青年은 이 女人의 유혹을 뿌리치는 그러면서도 女人의 처지를 동정하고 煩悶한다. 하나 意志로서 不義를 범하지 않고 유혹을 이겨 나가는 “人道”가 여기에 있다.

曙海는 自身の 作中人物들이 道德에 어긋난 行動을 取하기를 원치 않는다. 青年은 女人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면서 은근히 타일러 女人의 行動을 견제하는 人道的인 人物로, 女人은 더욱 동정적인 人物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作品에서 보여준 曙海 人情의 世界는 프로文藝批評價들로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는다.¹⁴⁾

封建的 生活에서 노예化한 한 女子의 新生의 行動은 道學者인 한 青年의 因襲的 道德의 勇敢한 活動으로서 조각조각 破滅을 當하고 말았다. -中略- 그의 筆致는 深刻하였으며 그의 思想의 最近은 프로레타리아 이데오로기에서 再生하였던 것인데 어찌해서 한 번 벗어나온 封建的 都德的 安價의 人道主義的 人生觀이 再生하게 되었는가? 무엇이 氏로 하여금 歷史를 逆行하게 하였는가?

이것은 바로 曙海가 人道主義 傾向의 作品을 쓰기 시작하자 文壇으로 부터 회색분자라는 烙印이 찍혀 비난의 화살을 받게된 事實을 立證하는 것인데 이 批評은 어디까지나 프로文學의 觀點에서만 본 評價이므로 客觀的인 評일 수 없고 作品의 透視한, 明哲한 판단이라고 보기 힘들다.

<주인아씨>에서는 하숙집 女人의 非人間的 行爲를 관찰하고 분노하는 「나」의

註：14) 朴英熙：文藝時評，朝鮮日報，1929.3.24-26

人道主義 精神을 보여준다.

<無名草>에서는 終前의 没人情한 의사들과는 달리 無料로 藥을 지어주는 의사를 그림으로써 人道主義的인 作品의 内실을 기했다.

<같은길을 밟는 사람들>에서는 作家의 人道的 精神이 他人에 對한 同情과 友情으로 表現된다. 이 作品의 핵심은 K의 臨終속에 얽힌 人情어린 에피소드에 있다. K君은 원래 날카로운 知性人으로서 아니꼬운 現實과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인데 不條理한 社會와 自身の 결벽증 때문에 점점 生活難에 쪼들리고 마침내 病人이 되고 結局은 四顧無親의 몸으로 석왕사에서 외롭게 죽어간다. 그러나 그의 臨終을 지켜 보는 한 女人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 人情있는 行動으로 人道主義의 一面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號外時代>는 慈善과 報恩의 意味가 복합되어 펼쳐진 人道主義 世界를 보여주고 있다. 早失父母하고 갖은 風霜을 다 겪으며 自手成家한 "홍재훈"이 甲富가 된 後 善行을 베풀어 人望을 얻는데서 이 作品의 慈善을 찾을 수 있다. 報恩의 意味는 두환에게서 發見할 수 있다. 홍재훈에게 恩惠를 입은 "두환"은 "홍재훈"이 破産 했을 때 報恩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그 方法은 은행돈을 橫領하는 完全犯罪 手法 으로 돈 삼만원을 갖는데 成功하나 火災로 젓더머가 되어 "홍재훈"의 事業 꿈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즉 여기서 曙海가 노린 것은 動機가 아무리 善할지라도 方法이 正當하지 못할 때는 결코 人道的인 수 없으며 不幸한 結末을 暗示해 줬다. "두환"의 犯罪는 엉뚱한 사람의 犯人으로 指目되는 또 다른 不幸을 招來한다. 그 의 人間的 양심은 나중에 자수하기에 이르고 "홍재훈"의 아들 "홍찬영"의 "두환" 代 身으로 獄苦를 결심하는 서로 人間관계의 人道主義 精神이 펼쳐지는 것이다.

以上 曙海 人道主義的 作品은 <人情>에서 시작된 溫情이 道德과 同情으로, 다시 友情과 同類愛로 展開되었다가 慈善, 義理, 報恩, 良心, 犧牲이라는 理想主義로 發展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曙海는 人間愛를 그리고 있으나 그의 文學에 登場하는 善良한 人間들은 결코 幸福 한 生活속에 安住하지는 못했다. 그 原因은 오로지 냉혹한 社會에 있었다. 그런데 本質的으로 曙海의 人生觀은 現實的인 것이었으며 그가 追求하는 幸福은 現實生活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曙海의 現實的 幸福觀은 <號外時代>에서 두환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說破되 고 있다.

그저 어디 별천지나 있는 듯 절(寺刹)이니 중(僧)이니 하지만 結局은 男女가 서로

만나 유자생녀하고 여러 사람과 같이 의종게 잘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이상이요 바른 길이라고 나는 믿네! 자네나 나나 불평이 만만하지? 예서 제서 매일 강도니 살인이니 또 무어니 야단법석 치는 것도 것처럼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는 변태적 현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입산을 하느니 수도원으로 가느니 하는 것도 사람으로서는 이단의 길을 밟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네!

現代的 幸福을 理想으로 삼는 人間들이 냉혹한 現實로 부터 버림받을 때 그들이 느끼는 不幸은 한층 더 심각한 것이다. 曙海의 作品에는 知識人이 잘 나오지를 않는데, 설사 나온다 해도 窮乏化된 知識人이 하루살이 같은 人間을 살아 나가는 悲慘한 人間群像이다.

後期作品들은 이 小市民的 知識人을 통하여 現實을 解剖하고 있는데 그 중 위에서 이야기 한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의 一部를 直接 소개해 본다.

나는 入社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社員들의 노랑꽃 피인 얼굴을 意味있게 보았다. 그들은 축 쳐진 어깨를 어쩔줄 모르고 이맛살을 쭈 사이가 없었다. -中略- 이렇게 지내는 사이에 피가 마르고 고기가 시들어서 얼굴에 노랑꽃이 돋고 두 어깨가 축 쳐져서 속없는 웃음만 웃게 된다.



知識人의 悲慘을 그린 曙海의 運命論으로서 人道主義的인 傾向으로 이끌어 나갔다. 돈이 人間生活의 手段으로 쓰이고 돈의 힘 앞에서는 人間의 善意나 正道가 無色해진다는 事實을 <號外時代>에 와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表現되고 있다.

失業權과 黃金萬能의 社會에서 가난하면서도 善良한 曙海의 作中人物은 하나하나 磨滅되어 간다. 作家는 生活의 悲哀에 젖어 運命에 順從하는 運命論者가 되어 버린 것이다. 特히 그러한 作家意識이 投射된 作品으로는 <無名草> <누이 동생을 따라> <같은길을 밟는 사람들>에서 농후하게 나타난다.

우상같이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나의 머리에는 어제 들은 그 얘기가 떠 올랐다.

“자살! 젊은 여자의 자살!”

젊은 여자로 물에 몸을 던졌다는 것도 그 이 보통 여자가 아니었다는 것도 역시 젊은 나의 가슴에 애뜻한 그림자를 긋는다. 그가 죽었다는 곳은 지금 바로 내다보이는 저 아래 편 해운대 앞 바다였다.

- <누이동생을 따라> -

曙海의 後期作品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역시 프로作家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은 것도 事實이고 그래서 文壇에서 잊혀져야 했던 것이며 그의 人氣가 急落한 듯 했지만 요즈음 다시 새롭게 再評價하려는 시도들은 결코 그의 作品이 質的으로 低下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後期作品에서는 小市民的 知識人을 통하여 現實解剖를 꾀하고 있다. 날카로운 知識人의 精神狀態와 社會現象을 결부시키고 있다.

時代的인 狀況에서 洪以變은¹⁵⁾ 1920年代 以後의 社會情勢로 봐서 理想主義와 民族主義 위에 러시아의 급진적인 社會主義 思想이 日本을 거쳐 國內로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民族主義와 共產主義의 二元的인 葛藤을 個人에게 심각하게 作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曙海의 作品 도처에서 幻想과 思母, 鄉愁를 素材로 하고 있는 바 이는 人間主義的인 根源에서 現實的인 體驗이 生生하게 수용한 데서 연유되는 것이다. 曙海의 文學에서 發見되는 實感나는 人間像은 바로 그가 對한 時代나 家庭的인 背景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다.

曙海는 <血痕>의 序文에서 自己의 理想과 現實의 심각한 葛藤을 “反對되는 性格이 反對되는 性格과 타협하려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이다. 이 말하는 나부터도 미련할는지 모르지?”라고 告白하고 있다. 그는 곧 “인습의 탈을 못벗은” 自己를 원망하면서 시퍼런 칼을 콧 박고 시뻘건 피를 확확 뿜으면서 “미치도록 통쾌하게” 거리를 누볐으면 한는 心境을 역설적으로 바라고 있다. 結局 曙海는 環境에서 오는 프로文學的인 색채가 있었기는 하지만 원래가 人道主義 作家였고 특히 後期作品에 와서 더욱 짙은 傾向이 있어 프로作家로 부터의 많은 욕과 曙海文學 輕視風調의 理由가 됐음을 다시 한번 反復되는 이야기 되는 바다.

죽고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열 두 번씩 나오는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의 화류계 女人 運命의 장난 속에 모진 삶을 이어 오다가 물에 빠져 죽는 <누이동생을 따라>의 두 남매, 돈을 빼앗기고 貞操까지 유린당하다가 娼妓가 되어 悲觀한 나머지 물에 빠져 죽는 <號外時代>의 “홍경애” 등의 모습에서 植民地 時代의 悲劇的인 人間의 典型을 發見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의 人道主義的인 作品 傾向이 曙海 作品 世界의 一面을 찾아했다고 하겠다. 다시말해 曙海作品의 기본류는 그의 人道主義的인 側面에서 發見하고 論議되어야 한다.

2. 抗日文學으로서의 曙海文學

韓國의 1920年代는 獨立鬪爭 - 民族運動史에 있어서는 10年代의 日帝의

註: 15) 洪以變: 韓國民族主義의 歷史的 性格 (陳德奎 撰: 韓國의 民族主義), P 101

의 土地 박탈에 對한 民族的 鬭爭의 첫 段階였으며 同時에 民族的 窮乏化에 있어 農民들의 沒落抗爭을 意識적으로 指導하려는 精神이 發發하던 時代였다. 이러한 時代的 潮流에서 作家로서 가장 앞서 달린 사람이 바로 崔曙海였다. 그의 放火와 殺人은 當時에 있어서 植民地 現實에의 抗爭의 한 方法이었고 民族的 울분의 폭발이었고 이 폭발이 民族的 心情의 호소로 表現된다. 16)

曙海作品的 特徵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日帝治下에서 3.1運動과 李舜臣 등을 내세워 民族意識과 獨立精神을 고취시키고 있다는 事實이다. 3.1運動의 失敗에도 朝國光復의 確信을 갖고 그의 作品을 통한 그 염원이 나타난다. 村老들의 對話를 통해 表現하는, 祖國光復에 對한 信念과 念願이 <底流>에 잘 나타나고 있다.

“괜히 시방 젊은 아이들은 철을 모르고 덤비지만 세상이 바루 돼두 때있는 게지 어디 그렇게 됴메?”

박관청은 혀를 툭 채었다.

“아! 더 이를 말시오. 시방 우리 늙아두 공부를 함메하구 성화를 대구 서울 가서 땡기더니 켜년엔¹⁷⁾ 만센지 부르고 떡센지 부르고 시방 징역을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되겠소” -中略-

“시방두 어디 제갈량 같은 성인이 있기는 있으련마는 소식이 없어……”

원숭이 같은 김도감은 담배를 빨다가 말했다. 그 목소리는 어디든지 무엇이 있으리라고 믿는 어조였다.

“있다 뿐이요, 제갈량이며 장비며 李舜臣같은 이가 다 있지만 그렇게 쉽사리 나서겠소”

이처럼 曙海는 作品을 통해서 日帝의 敗亡과 朝國光復에 대한 투철한 意志를 지니 그 當時 挫折感에 빠져 있던 朝鮮民族에게 民族意識을 일깨워 주고 日帝에 正面 對抗한 事實을 높이 評價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는 이와같이 앞으로의 民族的 獨立의 날을 의심하지 않은 作家의 意慾-希望을 披瀝했다. 民族的 으로나 個人的으로나 불우하고 억압한 데서 솟아나려는 意志를 굳게 지니려 했던 曙海는 作品 속에 抗日精神을 記錄했던 것이며 떠나가는 農民에 대한 기본 방책을 民族的인 自由를 두고 植民地 정책을 비판하였다. 어디까지나 基本條件은 民

註: 16) 洪以燮: 韓國精神史序說, 延世大出版部, 1975.2.

17) 前년에

族的 獨立이었기 때문이다.

曙海의 抗日文學은 역시 지금까지 이야기해 온 <底流>가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 作品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 作品은 종래 曙海作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手法에 의해 쓰여진 것이다. 民間에 流布되어 있는 俗談, 信仰, 傳說을 現實條件이나 民心과 對應시킴으로써 主題의 象徵的 表現을 겨냥하고 있다. 그 對應過程을 段階的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俗談을 통해 現實條件을 強調한다. 가뭄으로 因해 水量이 아주 豊富한 岫소(召)의 물이 말라버려 물고기들이 모두 餓죽음을 당하자 村老들은 世上이 망할 징조라고 생각한다. 不可能한 事件이 現實化 하자 反語的 俗談을 通하여 特別한 意味를 強調한다. “세상이 이렇구서야 바로 되겠소? 두만강에 떡이 들고 당 목이 똥숯개(똥지)되문 세상이 망한다더니”에서 보듯이 不可能한 일을 可能的 것처럼 말함으로써 意味를 強調하고 있다. 그렇다면 不可能한 事件이 現實化된 動機는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은 다음 對話에서 보듯이 日帝의 璿포에 있다는 것을 暗示한다.

“망해두 어서 망하구 흥해도 어서 흥해야지, 이거 이렇구서야 어디 견디겠소. …글세 술도 맘대로 못해 먹고 담배두 맘대루 못저먹는 세상에 살아서는 뭘 하겠소…….”

둘째는 英雄談과 現實條件을 對比시킨다. 영웅은 選擇된 人物이며 庶民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는 救援者的인 表象이다. 따라서 그들의 言行은 庶民들에게는 眞理이며 본보기가 된다. 庶民들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웅들의 처세를 저울대로 삼아 自身の 行動을 評價한다. 또한 흥길동과 소대성 같은 神話的 能力을 지닌 例外者的 人物을 登場시켜 國家의 興亡이 天運에 달려있다는 東洋的 運命論에 입각한 巨視的인 眼目을 要望하기도 하는 것이다.

셋째는 鄭鑑錄 信仰을 통해 民心을 表現한다. 鄭鑑錄의 信仰은 國難期의 民間 信仰이며 그 信仰을 통한 國難克服과 樂土到來의 樂天主義다. 鄭鑑錄의 骨子는 李王朝가 멸망하고 鄭王이 계룡산 新都에 나라를 세운다는 것이다. 예언대로 李王朝는 멸망하고 日帝의 植民地가 되었다. 따라서 百姓들은 鄭王이 출현하리라는 예언 또한 굳게 믿는다. 18)

註：18) 鄭鑑錄：申一 解題「韓國의 名著」所收(玄岩社 1970. P 458)

여기에는 日帝時代의 鄭鑑錄 信仰에 對해서 言及하고 있는데 美軍이 朝鮮에 進入해서 日本軍을 내쫓고 朝鮮이 獨立한다는 여론등을 낳게 함.

넷째는 아기장수 傳說을 통하여 民心을 나타내고 있다. 아기장수 傳說은 全國的인 廣布話話로서 民間傳承의 英雄談의 主流를 담당하고 있으며 挫折된 英雄의 모습을 통하여 民衆의 願望이 挫折당한 社會相의 悲劇을 反映하고 있다. 19)

바로 이러한 要素가 이 <底流>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갑산서두 날개 돋은 장쉬 났다는데?”

“글세 장쉬나문 어찌겠소”

“어째?…….”

“아 그 ××놈²⁰⁾들이 장쉬 나는 곳마다 쇠말뚝을 박아서 못나오게 하는데 … 저 설봉산에서두 땅속에서 장쉬나거라구 밤마다 쿵쿵 소리나더라오. 그런저 ××놈들이 말뚝을 박았다. 빼니 피묻었더라는데…….”

아기장수가 탄생된다 하더라도 日帝의 가혹한 行爲 때문에 民族 獨立의 大望이 挫折당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民心은 日帝의 방해에 관계없이 民族 獨立의 念願은 반드시 성취되리라는 것이다. 時運이 오면 아기장수는 英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民族을 구한다는 것이다. 傳說을 통해 祖國光復을 念願하는 다음의 對話를 보자.



“나오기는 어느 때든지 나올걸? 에구 어서 나와서…….”

“나오구말구! 하지마는 다 때가 있는 건데 … 시방 시속 사람들은 괜히 위야하고 우리네 ××이나 가져가른 소용이 있어야지 …다 때가 되서 장쉬가 나아지!”

“이제 보오마는 때는 꼭 있을게요!”

이 作品에는 아기장수 傳說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그 出生時가 모두 日帝下라는 點에서 광범위하게 流布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民心의 절박성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救援者的 英雄의 출현에 대한 확고한 信念을 갖고 있다. 그러나 事實上 朝鮮 안에서의 植民地 現實에의 抗爭을 意識속에 간직할 수는 있어도 文學的 世界로 表現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이러한 意識은 <底流>에 보이 듯이 ○○놈(왜인놈?)이나 또 地主와 머슴의 葛藤으로 處理해서 넘겼다. 즉 伏學 ○○이나 ××로 20年代의 民族的 感情을 表示했다. 곧 이 作品은 좀

註: 19) 沈晶燮: 傳說의 文學的 構造, 文學과 知性 27, 1977.2, P 240

20) 日本놈

차원이 높은 角度에서 民族獨立의 大望과 信念을 表現했다.

曙海의 私的인 抗日精神을 指摘한 白鐵은²¹⁾ 曙海가 每日申報에 入社하여 記者가 된 일이다. 그가 每日申報에 入社한 動機는 한 마디로 해서 個人的인 生活難 때문이었는데 日本 總督府가 背景된 新聞이었기 背信者, 더 惡談을 해서 總督府의 사냥개라는 말을 들어 매장을 당했다. 다시말해 當時의 反日帝的인 결벽성의 社會風土에선 그 入社가 曙海의 文學評判을 위해선 치명적인 상흔을 입혔다고 볼 수 있다. 프로文學派로부터는 비난과 욕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해서 曙海가 文壇에서 묵살되어버린 후반의 理由를 이 事實과 直接 관계가 있다고 해서 抗日精神에 多小의 금이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이제 曙海의 다른 作品을 통해서 抗日意識을 찾아 본다.

作品속에 植民地的 現實을 告發하거나 批判하는 가장 뚜렷한 作品을 들어보면 <底流>外에도 <葛藤> <鄉愁> <五圓七十五錢> <해돋이> <二重> <暴風雨時代>等 많다.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日帝의 侵略的인 資本主義 上陸과 都市 勞動者의 增加와 東拓의 土地 수탈정책 때문에 離鄉한 農民의 浮動失業人 增加로 不安했던 이 時代 社會情勢는 曙海作品에도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었다.

<葛藤>에서는 當時로서는 때이른 知識人들이 지녔던 미숙한 意識의 萌芽를 더듬으며 不遇한 사람들에게 同情的인 未來志向의 精神을 삼고 있다고 確信하고 그러한 苦鬪를 벌였다.

오오 그대들이여! 그대들은 세상을 낙관하라! 삶을 사랑하라! 겨울은 지나간다. 봄빛이 이제 찾으리니 한강의 얼음과 북한산의 눈이 녹는 것을 반드시 볼 것이다.

<鄉愁>는 日帝의 순사로부터 뺨을 맞고는 울분을 품으며 그리운 故國에 애착을 많이 남겨두고 獨立團에 加入하는 “김우영”의 行動을 통해서 抗日精神을 나타내고 있다. 눈치우러 열른 나오잖는다고 구타당한 狀況에서 “내가 아무때든지 이 설치를 해야지” 하는 復讐의 念을 품어 이 복수의 執念을 獨立團에 入團하여 獨立運動을 展開하는 作品이다.

<五圓七十五錢>에서는 日本人에 대한 멸시와 反感이 나타난다. 여기서도 人情 있는 朝鮮人들과 이 反面에 沒人情한 日本人과의 관계가 잘 그려져 있다.

“허 그놈의 난장이 같은 일본놈이 제게다가 전기 청원을 안했다고 양심을 먹었던 말 예요!”

註：21) 白鐵：前掲書，PP 235-236 參照

“양심은 왜?”

“그놈에게 말하면 그놈이 하여금 의뢰금 얼마를 먹지요! 그것이 회사에 직접 말했더니 그놈의 양심을 먹었다 말씀이지요! 저놈에 세상…….”

하숙집 主人이 한달치 전기세를 내지 못하자 日人 電氣會社員이 電氣를 끊어버리자 그 日의 行動에 對해 主人이 분개하는 場面이다. “난장이 같은 日本놈”이란 말에는 日人에 對한 蔑시 感情이 그 當時 가혹한 檢閱制度를 생각한다면 가장 노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해돋이>에서는 만수의 行跡을 통해 한 青年의 民族意識을 보여주고 있다. 만수는 3.1運動으로 因한 獄中生活에서 民族理念이 굳혀지고 그렇게 愛國者的인 만수가 아니었기에 結局 이 理念은 전 百姓에게 전파시키는 舉族的인 運動으로 파악이 되는 것이다. 祖國光復에 對한 百姓의 念願을 들어보자.

이때 만주 시베리아 상해 等地에는 ×××이²²⁾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경계선을 앞뒤에 벌였다. 내지로서 은밀히 강을 건너와서 ×××에 몸을 던지는 청년들이 많았다. 산골짜기에서 나무를 베던 초부며 밭을 갈던 농군도 호미와 낫을 버리고 ×××에 뛰어들어 이가 많았다. …×××의 세력은 컸다. 이역의 눈비에 신음하고 살아오던 농민들은 한푼 두푼 모은 돈을 ×××에 바치고 곡식과 의복까지 형과 아우들까지 바쳤다.

<二重>은²³⁾ 日本人의 民族差別 精神을 悲哀의인 朝鮮人의 忿怒로 펼치고 있다 日本人村에 이사온 「나」의 아내는 朝鮮人이라 하여 목욕탕에 들어가기를 거절당하여 男便이 이에 忿怒하는 日本에 對한 저주가 그려져 있다.

<暴風雨時代>에서는 獨立運動을 歷史的인 眼目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序頭에서 「우리 同胞의 슬픈 이야기를 우리 同胞의 앞에 돌려 주겠다」고 전제하고 조병구 집안의 三代에 걸친 民族運動의 來歷을 들려줌으로써 朝鮮人의 獨立意志를 歷史的 觀點에서 從的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병구의 祖父는 儒林의 代表的 人物로서 구한말 國運이 흔들릴 때 상소를 거듭 올리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義兵²⁴⁾을 일으켜 대항하다가 총탄을 맞아 죽음을 당한다. 그 後 “조병구”의 아버지는 家族을 이끌고 만주로 移住한 後 同胞를 위한 教育事業에 몸을 바친다. 이 教育事業은 間接的인 民族運動이었다. “조병구”의

註： 22) 獨立團：檢閱을 意識한 것. 以下도 마찬가지

23) 全面 삭제당했던 이 作品은 日訳되어 收錄된 것을 金根洙가 重訳

24) 本文에서는 削除당하여 ××로 되어 있음.

아버지는 항상 아들에게 “너는 와석종신을 말어라, 네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다는 것을 우리父子는 잊지 않아야 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의²⁵⁾ 아들이 거늘 와석종신을 말어라” 훈계하여 渾信을 기울여 民族運動을 하다 죽을 것을 念願한다. 조병구의 同志인 「나」는 3.1運動 때 만세를 부르기도 日帝의 탄압을 피해 만주로 도피하여 조병구의 事業과 德望을 흠모하며 義兵運動에 참여하고 3.1運動의 관계가 상징적으로 추구되고 있다.

以上 曙海작품을 통한 抗日文學을 살펴 봤지만 비단 曙海뿐만 아니라 이 時代의 作家들은 民族的 現實의 自覺이라는 知識人의 사명을 作品으로 具現하였으며 그것은 新教育을 받은 독자층의 호응을 받았다. 그리고 이들 作家들은 作品을 통해 農民 勞動者 婦女子 등 소외된 民衆들 편에 서서 時代의 고민을 일깨우려 하였다. 이들은 外的으로 植民地 制度의 모순에 對한 現實批判과 內的으로는 封建的인 因襲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의 目標을 指向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朝鮮魂>을 主軸으로 하여 近代化 運動을 촉진시키면서 民族意識을 高場시켜야 하는 二重의 使命을 作品創作을 통해 수행하려 했다. 春園에서 曙海에 이르기까지 위의 두 가지 側面을 作品에서 同工異曲으로 表現되고 있다. ²⁶⁾

또한 曙海는 비록 日帝에 對한 것만은 아니지만 社會的 現實에 對한 反應의 한 形態로서 강한 절규가 나타나기도 했다.

불길은 … 그 붉은 불길은 의연히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처럼 하늘하늘 타 올랐다.

— <紅焰>에서 —

빨간 불 속에서는 시퍼런 칼을 든 악마들이! 불끈 불끈 나타나서 온 식구를 쿡쿡 지른다. 피를 흘리면서…….

— <飢餓와 殺戮>에서 —

또한 그의 作品 <故國>에서는 故國땅을 바라보고 반기는 心情은 曙海 自身이 直接 經驗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는 寺洞難에서 강을 건넜다. 수직이 순사는 어의 거진가 하여 그를 눈도 거들떠 보지 않았다. …달래 봉오리 방긋 방긋하는 오산을 바른 편에 끼고 …동문고개에 올라섰다. 그 눈에는 회령시가 보였다.

註：25) 朝鮮의

26) 尹弘老：韓國近代小說研究，一潮閣，1981. P 284

그리고 曙海는 故國의 거리에서 滿洲獨立軍의 얘기를 짧게 전하려 했고 이 作品에서 시도한 것은 敗北感 내지는 疲勞感에서 오는 무거운 마음의 한구석에 생생히 남아 있다.

이 때 한창 南北滿洲에 獨立團이 처처해 벌떼같이 일어나서 그 경계선을 앞뒤에 늘일 때였다. 청백한 사람으로서 정탐군이라고 獨立軍 총에 죽은 사람도 많았거니와 진정 정탐군도 죽은 사람이 많았다.

3月1日以後의 思想的 激變, 經濟的 激變, 貧窮한 植民地人이 겪는 試練으로서의 울분을 역시 <紅焰>에서 찾아 본다면,

“그때는 벌써 문서방의 손에 쥐었던 독기가 殷가의 머리에 박혔다”

이것은 곧 植民地 치하에서 조들리어 異民族에게 당하는 經濟的 핍박과 恥辱으로 다분히 抗日精神으로 曙海에게는 명백히, 속속이, 적나라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러한 그의 民族的인 치욕은 放火-殺人(宿怨의 敵에게 보다 강한 일격)으로 結末을 짓는데 <紅焰>의 精神은 그 時代 植民地 치하의 現實認識에 나타난 것이었으니 곧 曙海의 抗日文學은 보다 社會的 民族的인 意識課題였기에 1920年代, 이 社會의 가난을 日帝의 植民地 정책을 反抗과 울분 속에서 되새기며 짧은 一生의 30여년의 時間과 鬭爭했던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 曙海는 極限的 狀況에서 敗北하는 植民地 人間을 그린 것이 아니라 불과 피로 抗爭하며 社會的 모순을 熱情과 힘으로 打破하는 人間을 그린 것이 바로 曙海小說이 지닌 特徵이기도 하며 抗日文學인 것이다. 그는 植民地下 韓國現實을 리얼하게 제시했으며 民族意識을 일깨워 준 作家로서 評價되어야 하겠다.

五. 構造와 技法

1. 主 題

曙海의 全作品을 一貫해서 흐르고 있는 主題意識은 社會와 人間의 問題라고 한마디로 要約할 수 있다. 즉, 植民地的 現實反映과 그 現實 속에서 살아가는 善良한 人間들의 따스한 人情의 世界가 그의 文學의 主流를 이루는 思想이다. 그리

고 이 主題는 主人公의 心理描寫나 對話를 통하여 主題意識을 밖으로 드러낸다. 勿論 全作品의 主題의 外面化를 들 수 없지만 상당수의 作品이 主題表出過程에서 誤論을 범했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 代表的인 作品들이 <脱出記>를 비롯해서 <큰물진뒤> <飢餓와 殺戮> <餓逆辭> <鄉愁>등이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부지런하면 부자가 된다. 남이 욕하든지 때리든지 가지든지 가만히 있어라—이러한 것을 자기는 조금도 어기지 않고 지켜왔다. —中略— 집을 바치고 힘을 바치고 귀중한 피까지 바치면서도 가만히 순종하였건만 누구하나 이렇게 하는 이가 없었다.

— <큰물진뒤>에서 —

主人公의 思考를 통하여 社會에 대한 不滿을 直說的으로 吐露하는 위 인용문은 曙海小說의 主題表出의 樣相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이런 類의 主題表出은 前期作品에서 主로 使用하고 있으며 曙海의 基本 文學精神은 그의 人生 밑바닥에 깔려있는 의도적인 것이다. 人道主義의 露出이다.

李哲範은 曙海小說은 私小說이라고 말하면서, ²⁷⁾ 무엇보다도 상상력의 결핍과 作家意識의 미숙한 점이 큰 흠이라고 지적하고 그 예로 <故國>의 경우를 들고 있다.

曙海作品은 같은 作家의 손을 거쳐서 나온 作品이건만 甲作品의 手法과 乙作品의 手法이 다르다.甚한 때는 手法뿐만 아니라 그 傾向과 思想에서까지 相互 乘離되고 撞着이 생긴다. 勿論 作者란 사람인 以上 그것이 固定的이 아니오 流動的 이니까 그의 內的 生活과 外的 支配를 따라 變하겠지만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時期와 階段이 있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같은 時期, 같은 作者의 손에서 여러가지 色彩의 作品을 보게 되는 것은 作者自身の 思想感情의 混沌에서 나타나는 結果라고 믿는다. 그렇더라도 그 모든 것이 上品의 作일 것 같으면 모르겠으나 元來 이렇게 되고는 作品다운 作品을 낳지도 못하거니와 바랄 수도 없는 일이다.

中期作品에서는 主題의 外面化가 前期作品보다는 농도가 덜하여진다. 그러나 몇 作品에서는 여전히 主題意識을 장황하게 說明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한 경우가 있다. <아내의 자는 얼굴>과 <의사>가 代表的인 例다. <아내의 자는 얼굴>은 作品 序頭에서 主人公의 思考過程을 통하여 프로意識을 表白하고 있는데 이 部分은 作品 분위기와는 동떨어진 世界다. 作品 분위기는 가난하나 다정한 夫婦의 다사로움이 主調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序頭는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註：27) 李哲範：前揭書，P 368

生硬한 階級理論의 羅列이다. <의사>에서 보면 이것 역시 生硬한 階級反論을 露出시키고 있다. 이 作品은 一定한 小說의 形式을 無視하고 貧者和 富者の 葛藤이라는 圖式性만 重要視한 나머지 너무 簡單하고 安이하게 處理되었다.

後期 作品에서는 主題의 露出를 되도록 피하고 있다. <누이동생을 따라>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에서는 作品 분위기를 통해 主題의 含蓄성 있는 表現을 指向하고 있어 曙海가 後期에 와서 비로소 技法을 터득했다고 보여진다. 結局 主題의 外面化가 特徵이라 할 수 있겠는데 作家 人生觀이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렇듯 曙海는 그 技法이야 어떻든간에 自己의 人道性을 表現했다. 曙海의 小說은 극단적으로 어긋난 사태에 對하여 弱하고 힘없는 주동이 극렬한 反作用으로써 그 否定的 對상에 도전하고 분연히 일어서는 主人公들의 싸움의 무대로 짜여져 있어서 主動과 反動의 상호관계는 점진적으로 긴장과 대립이 高調되고 결정적인 對立과 鬭爭에서 야비하거나 비상한 수단으로써 파괴적이고 悲劇的인 結末으로써 제기된 과제가 解決된다.

또한 曙海의 作品속엔 忿怒한 人物들의 광폭한 殺人行爲와 破壞行爲가 많이 登場하는데 이것은 作家의 民族主義 思想의 것으로 評價되어야 한다. 그래서 曙海의 小說은 어두운 霧圍氣를 자아내게 되는데 이 어둡고 음침한 것도 그 小說의 主題와 相通된다. 암울한 主題에 암울한 貧困霧圍氣, 바로 이것이 曙海小說의 한 側面이고 貧窮에 허덕이는 人間의 內面世界와도 相通되는 것이다. 曙海의 主人公으로 하여금 呼訴와 絶叫를 하게 되는 所以然일 것이다.

다음, 曙海 作品에서 愛情問題를 主題와 관련시켜 살펴볼 必要가 있다. 이것은 곧 그의 民族主義文學의 根源이 된다.

모든 藝術이, 모든 文學作品이, 모든 小說이 愛情이 없는 게 없겠지만 曙海의 경우 愛情問題를 다루는 作品으로는 <梅月> <寶石半指> <東大門> <飢逐辭> <가난한 아내> <境界線> <젊은 시절의 로맨스> <물벼락> 등이 있다.

曙海文學에서 愛情問題는 愛情의 結給이 없는 게 特徵이다. 大部分의 짝사랑으로 끝나며 作中人物의 사랑의 結合을 방해하는 要素는 因習과 道德觀念이며 主人公의 가난한 現實이기도 하다. 主人公이 愛情問題에 임하는 소극적인 性格이 나타난다. 즉, 性的 結合을 볼 수 없다. 人格的 戀愛觀에 바탕을 뒤서 이 人格的 사랑은 가난 때문에 現實的으로 成熟되지 못하고 따라서 性的인 結合은 염두도 내지 못한다. 이러한 愛情世界는 曙海를 自然主義 作家들과 區別시키는 要素가 된다. 自然主義 作家들은 「人生의 暗黑 醜惡한 一面을 如實히 描寫함으로써 人生의 眞相은

이러하다는 것을 表現하기 爲한」²⁸⁾ 手段으로 性慾描寫를 題材의 하나로 擇했다. 그러나 曙海는 社會의 否定的인 面을 告發했으나 反面 人間을 肯定的 차원에서 그리려고 했으므로 性慾描寫는 처음부터 관심 밖의 課題였다.

사랑에 빠진 그들은 어느 경우에나 事件의 解決을 보지 못하고 煩悶한다. <梅月> <寶石半指> <가난한 아내> <젊은 시절의 로맨스>가 모두 그렇다.

<梅月>은 朴生이 權力으로 梅月을 손에 넣을 수 있으나 홀로 煩悶하다가 相思病이 나는 것을 그렸고 <寶石半指>는 사랑하는 女人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말 한번 건네지 못하며 혼자 가슴을 태우는 짝사랑을 그리고 <젊은 시절의 로맨스>도 같은 内容이며 <가난한 아내>는 아내를 서울로 불러 같이 苦生이 되드라도 살 수도 있으련만 이를 實行하지 못하고 戰戰兢兢하는 것을 그렸다.

일찌기 曙海는 <血痕>의 序에서 다음과 같이 吐露한 바 있다.

내 앞에는 두 길밖에 없다. 革命이나? 戀愛나? 이것뿐이다. 극도의 熱愛속에 묻히고 싶다. 그러나 내게는 戀愛가 없다. 아니 있기는 하나 그것은 사야만 된다. 나는 戀愛를 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게는 반역뿐이다.

曙海作品的 愛情世界는 大部分이 가난한 現實 때문에 迷路에서 방황하는 悲恋의 世界였다. 누구보다도 戀愛를 憧憬했다. 고달픈 生活苦에 따듯하고 알뜰한 女人의 사랑을 그리워 했다. 그의 環境과 外貌는 理想的 사랑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사랑을 찾으면 찾을수록 寇寞과 悲衷은 더욱 자라났다. 또한 曙海는 이러한 사랑의 悲感을 同類愛나 大義名分으로 昇華시키려고 努力하며 克服하고 있다. 곧 人格的인 愛를 主張하고 있다. 人格的 戀愛를 理想으로 삼고 人類愛를 戀愛보다 優位에 두는 曙海의 思想은 그가 私淑한 春園의 理想主義와 一脈 相通하고 있다.

또한 曙海作品을 說話에서 素材를 選擇하고 있음을 主題과 관련시켜 볼 수가 있는데 위에서 언급한 <底流>는 說話를 現實的 條件과 對應시켰고 <梅月>은 說話를 閏色하여 作品化했고 <그믐밤>은 古譯과 俗信을 作家의 豊富한 상상력으로 小說化하였으며 이런 것들이 바로 主題를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高度의 文學的 手法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그리고 <葛藤>에서 보여주듯이 貧者와 富者의 階級的 對立이라는 프로文學의 圖式性에서 벗어난 人道主義 世界를 指向하는 主題意識을 表하고 있음은 더욱 주지할 일이다.

註： 28) 廉想涉：個人과 藝術, 開關 (22), 1922.4. P 3

2. 人 物

作中人物은 그가 속한 社會와 時代를 代表하며 그의 行動은 作品의 主題意識과 密接한 關係를 맺기 마련인데 曙海는 果然 어떤 作中人物을 選擇했는가 하는 것을 作中人物의 職業, 年令, 性別, 教育程度, 生活程度를 헤아려보는 外的條件과 對話와 行動을 보고 性格등을 把握하는 內的狀態로 나누어 살펴 보겠다.

먼저, 外的條件을 본다면, 曙海는 下層民과 가난한 小市民들을 主人公으로 삼았음은 여러번 이야기가 反復되고 있다. 作家가 處해 있는 社會告發의 性格을 띤다. 여기에는 理由가 있다. 自己 自身이 속하는 階層이라는 理由도 있겠지만 社會의 不條理를 파헤치려는 作家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의 制裁들은 그의 體驗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도 分명한 일이다. 社會的 制度에 貧困의 原因을 두면서 곧 個人의 貧困이 밖의 부당한 制度와 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자각을 主人公들을 통해 作家는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貧困의 不幸이 作品 속 人物들에 의하여 社會的 不均衡에 直接 개입하려는 行動의 意志로 나타난다. 忿怒한 人物로 보복행위가 露出된다. 또한 曙海는 社會의 不條理를 젊은 男子의 視線을 통해 파헤치고 있다. 人物은 거의 男子다. 男子가 主人公이라는 것은 그 作中人物이 曙海의 分身이거나 어느 한 面이 담았다. 이것은 곧 作家의 自我表現慾의 結果라고도 볼 수 있지만 男子가 社會의 主要 構成員이며 生活前線에서 直接 活動하는 人物이란 점이 重要的 動機다. 男子의 視線을 통한 社會告發이 가장 理想的인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作中人物의 年令이 거의 30代의 人物을 擇하게 되는 것도 特異한 일이다. 따라서 曙海作品에 反映되는 現實은 青年期의 血氣와 感情을 통해서 바라본 것이다. 때문에 作品 속에 투영된 現實認識은 寬容性이 있거나 迂廻的인 것이 아니었다. 現實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直線的으로 느끼고 衝動的으로 行動한다.

作中人物의 教育 수준은 高等教育을 받았거나 留學한 人物은 거의 없다. 大部分이 小學校 中退이거나 卒業의 貧弱한 學閥을 가지고 있다. <錢迓辭>처럼 記者인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作家自身の 修學過程과 一致된다.

이러한 曙海作品의 主人公에 대해서 그 副人物은 主人公의 家族 一員으로서 類型的인 人間들이다. 老母라든가 젊은 아내, 어린 자식으로 登場이 되며 또한 新女性의 登場을 들 수 있다. 新女性은 主人公의 憧憬과 戀慕의 對象이다. 그들은 유치원 母, 女學生, 教師 등의 職業을 가지고 있고 洗練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고 있다. 主人公들은 괴롭히는 人物로는 역시 中國人 地主와 日本人으로 曙海文學의 民族主義的인 性格의 一面을 보여준다.

이어서 內的狀態의 人物을 들추어 본다.

한 作品에서 한 作家의 作中人物의 性格을 規定할 때 類型的이나 個性的이나를 基準으로 삼는데 曙海의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類型的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類型이 되었든간에 그 主人公, 老母, 아내의 性格과 行動은 全作品을 通하여 共通되고 있다. 主人公들은 貧窮에서 오는 無能力한 家長으로서의 罪意識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社會를 저주하게 되고 때론 自暴自棄에 빠지기도 한다. 主人公의 어머니는 회갑이 넘은 늙은 女人으로서 典型的인 朝鮮의 어머니像이다. 아내는 封建的인 女人으로 男便에 順從하고 善良한 女人像이기에 모두가 朝鮮 固有의 女人들이다.

作中人物의 反抗的 生理도 빼어버릴 수 없는 性格이다. 既存社會 秩序에 對한 회의와 反抗 그것을 作品 속에 나타내고 있다.

아니다. 남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 아내는 죽는다. 음 소용없다. 선한 일! 죽어도 천당보다 악한 짓이라도 해야! 살아서 잘 먹자 -그놈들도 다 못된 짓하고 모은 것이다. 예까지 왔다가 가다니?

- <큰물진뒤>에서 -

以上 作中人物의 性格上, 類型的인 人間됨을 否認할 수 없고 이 類型性은 作家自身の 體驗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 讀者들에게 事實感을 줬고 反面 편태감을 수반한 것도 事實이다.

다음 人物 描寫方法에 대해서 덧붙인다면 「近代小說의 人物描寫는 敘述描寫 對話의 여러가지 方法을 併用하고 있는데 主觀的인 傾向을 排除하고 客觀的으로 描寫하려고 努力하고 있다」²⁹⁾ 는 觀點에서 보면 曙海는 前期에는 主觀的인 說明을 많이 했으나 점점 그러한 傾向을 脫皮하더니만 後期에는 客觀的인 人物描寫를 보여 주고 있다.

中期作品에서는 人物의 行動, 對話, 思考를 통해 間接的인 性格描寫를 하고있다. 간혹 主觀的인 解說이 눈장 뜨일 경우도 있지만 人物의 對話를 통해 性格描寫를 하고 있는데 그 代表的인 作品 역시 <底流>다.

“가만 가만 있소. 내가 먼저 얼른 할게”

“어쿠 영감두 주새두 없는 게 그래 얼른 짓(吠)소 흐흐”

註：29) 鄭漢淑：小說技術論，高麗大學校 出版部，1973. P 96

“에 짓다니? 양반을 모르고 하하하”

“우리 클아배때두 날개 있는 장쉬가 나서 그 아버지가 운더루다 가져놔서 그만 죽었다오! 그래 어서 하오 내 말을 이 뿐이오”

比方 사투리로 驅使된 이 對話로서 볼 때 悠悠自適한 老人世界로서 人物의 性格을 間接적으로 描寫하고 있다. 이마 벗어진 영감의 주책과 惡意가 없는 性格. 유모어로 對話를 야유하는 朴觀淸의 諧謔的인 性格을 把握할 수 있다.

다음은 作品背景속에 나타난 人物과의 關係를 다소는 曙海의 人道主義 文學에 위배되는 것 같지만 事實은 그 作品 背景속의 처참한 現實을 포악한 人物이 아니면 안된다는 民族的인 見解로 表現되는 것을 申東旭의 이야기에서 빌려보면, ³⁰⁾

曙海의 作品背景은 혹한의 겨울밤이거나 홍수가 터지는 칠야비 밤이거나 속수무책인 처지에서의 위급한 환자나 암담한 형편이 보인다. 그에 따라 人物들도 포악하거나 사려 깊지 못하고 단순한 우직성과 저돌적이고 충돌적인 성품을 소유한 特徵들을 갖추고 나타난다.

이를 <暴君>은 잘 나타나고 있다. 아무것도 할 能力은 없고 오직 술과 노름과 싸움밖에는 할 일이 없는 主人公 순종하는 아내를 살해하고 自身도 옥에 갇힌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다. 不滿의 解決을 殺人밖으로는 할 수 없는 病的인 포악성이 드러나는 小說의 美는 공포의 뜻을 나타내기에 이른다. 말하자면 원시적 야비함이나 파괴적 本能만 살아 있는 人物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人物군도 실상은 막히고 억눌린 社會的 環境에서 야기되는 人物들이다. 곧 民族的 反抗의 文學을 말하기 위한 人物이다.

끝으로 曙海의 作品에 나오는 人物의 이름을 대충 例 들어 보면, 윤호,朴돌, 金 초시, 진수댁, 최순호, 김서방, 창화, 용례, 박인화, 변기운, 춘삼, 김철호, 라운심, 파충댁, 김병원, 문서방, 인갑, 정인숙, 봉준, 순남, 용녀, 백금, 종범, 경수, 최일천, 학범, 삼돌, 김좌수, 만득, 용순, 박춘식, 홍성녀, 승현, 몽주, 기선, 유원, 선동아비 등인데 이는 이는 作品을 이끌어 가는 主人公으로서 姓도 이름도 分明하지 못할 程度이며 대개가 시골의 無知하고 천박한 性格의 소유자들이고 이는 그러한 이름 構成에까지 신경을 쓴 曙海의 時代的 아픔을 反映한 것이라 하겠다. 이 人物하나 하나에도 그의 民族的 울분이 담겨져 있다.

註: 30) 申東旭 : 우리 이야기 文學의 아름다움, 韓國研究叢書 44, 1981. P P 229-231 參照

3. 構 成

曙海는 作品의 技巧에 別로 관심을 두지 않고 文學의 藝術的 形式에 대해서 그리 탁월한 識見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가 中期에는 “나는 內容과 形式을 분리하여 보고 싶지 않다. 다시 말하면 內容과 形式은 鳥의 兩翅와 같고 車의 兩輪과 같이 서로 有機的 關係를 가지고 있어서 二元的이 아니오 一元的이 될 것이다.³¹⁾” 라고 진보된 觀點을 보여 준다. 그러나 추상적인 見解만 밝히고 있을 뿐 어떻게 쓰면 形式과 內容이 유기적 關係를 가지게 될지에 對한 具體的인 方法提示는 전혀 없다. 이는 아직 小說의 本質을 洞察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것은 불과 2年 後에 <內容과 技巧>³²⁾ 라는 小論에서 自身の 論旨를 뒤집어 버렸다는 데서 더욱 分明해진다.

아름다운 曙海는 作家의 뚜렷한 主見이 없어 文學論의 混亂을 가져온 것은 그 當時 프로文藝批評家들의 理論 鬭爭에 휩쓸려든 데서 그 原因을 찾을 수도 있지만 作品에서 形式上의 缺乏이 發見되면 그 原因을 文學觀의 貧困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前期作品은 事件의 展開가 平面的이면서 그 類型이 貧窮에 시달리다가 脫家하여 放浪生活을 하게 되는 構成法을 썼다. <故國> <脫出記> <拾參圓> <그刹邦> <鄉愁> 등이 있고 貧窮에 시달리다가 家族이 죽거나 傷害를 입는 것을 목격하고는 殺人이나 강도행위를 하는 <큰물진 뒤> <朴들의 죽음> <飢餓와 殺戮> 등이 있다.

<큰물진 뒤>는 主人公 윤호가 天稟은 지극히 善良하나 너무도 억울한 狀況에 接하자 울분을 품고 폭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중반부까지의 줄거리인데 여기까지는 構成上 나무랄 點이 없다. 오히려 環境에 따라서 性格이 變하는 立體的 人物을 그렸다는 點에서 成功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結末에서 誤謬를 범하고 만다. 아무리 화가 나고 極限狀況에 몰렸다 하더라도 善良한 良心과 理性을 지닌 人間이라면 복수도 因果에 의해 行해져야 했을 것이다. 또한 作中人物들이 너무 쉽게 죽는다. 作品의 劇的인 效果를 노렸겠지만 構成의 必然性을 저해했음은 明白한 事實이다. 흥수 場面은 매우 간결한 文章으로 그의 性格的 一面과도 相通한다.

모진 바람이 한바탕 지나갔다. ...떠내려 가는 집들이 보였다. 아우성치는 사람이 보였다. ... 그는 주먹을 부르쥐고 이를 악물었다. 윤호는 자기 집마당에 다달았다.

註 : 31) 曙海 : 文壇時感 (現代評論 1927.7.1) 參照

32) 曙海 : 熱日苦語 (3) (東亞日報 1929.7.4) 參照

위에서 보면 긴 場面이나 긴 行爲, 긴 思索的 霧圍氣의 描寫보다는 과단성 있는 行動과 속도감 있는 場面の 變化가 많거나 긴 場面을 다룰 경우라도 자주 끊어 말하는 構成을 했다.

그는 幻想의 場面을 많이 使用한다. <그믐밤>에선 첫 場面부터 삼돌이의 幻想 場面부터 시작이 된다.

삼돌이의 정신은 점점 현실과 멀어졌다. 흐릿한 기분에 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으 속하기도 하고 그저 흰한 것 같기도 한 데로 끌려갔다. -中略- 그는 자기가 앉았는지 섰는지도 의식치 못하였으며 밤인지 낮인지도 몰랐다.

이러한 場面은 다른 作品에서도 많이 效用되고 있다.

惡毒한 魔鬼가 焔焔한 火焰을 우리 집으로 向하여 뿜는다. 집은 타다. 잘 타다. 우리 食口도 그 속에서 타 죽는다. 나는 몸살을 치며 눈을 번쩍 떴다. 그것은 한 幻想이었다.

- <吐血>에서 -

낮인가? 밤인가? 밤 같기는 한데 어둡지는 않고 낮 같기는 한데 별이 없는 음침한 곳이다.

- <朴들의 죽음>에서 -

경수는 주먹을 부르짖면서 소름을 쳤다. 그는 뼈가 짜릿짜릿 하고 염통이 쑥쑥 걸렸다. 그는 자기 옆에도 무엇이 있는 것을 보았다. 눈깔이 벌린 자들이 검붉은 손으로 자기의 팔다리를 꼭 잡고 철관으로 자기의 염통피를 빨면서 흥소를 친다.

- <飢餓와 殺戮>에서 -

이 幻想場面은 中期作品에서도 나타나 空想場面으로 變型되어 出現하기도 한다. 前期作品의 幻想이 붉은 피와 시빨건 불길, 악마들로 構成된 原色的이고 刺戟的인 것이라면 中期의 것은 조금 더 穩健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前期의 幻想은 事件을 급진적인 飛躍으로 끌여가기 爲한 橋梁的 역할을 하는 反面에 中期의 것은 構成上 아무런 意味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前期作品에서 보여지던 必然性의 喪失이 어느 程度 克服된다.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文學 장르를 復合시킨 面이 많고 構成上 엉성하고 稚拙한 作品이 많이 發見된다.

<금붕어> <二重>은 小説과 隨筆의 性格을 同時에 띠고 있다. <彷徨>에서도 隨筆色이 짙다. B라는 架空的 人物을 내세웠기 때문에 小説로 볼 수 있으나 作

품의 內容은 分明히 隨筆的이다. <시골 少年의 부른 노래> <세處女>는 모두 個人 情緒의 一般的인 詩의 性格을 벗어나서 小說的인 虛構性을 보여주는 作品들이다.

<白琴> <해돋이>에서는 構成의 混亂을 指摘할 수 있다. <白琴>은 時制上으로는 過去, 現在, 空間的으로는 간도, 회령, 서울이 混合되어 있고 文體로는 日記文인 것과 아닌 것이 뒤섞여 있어서 全體的으로 統一性이 없고 混同된 느낌을 주고 있다. <해돋이>에서도 하나의 短篇속에 너무 많은 內容을 담으려 다가 散漫해진 느낌을 주고 있다.

中期作品에서 構成이 잘 된 作品은 <무서운 印象>과 <紅焔>을 들 수 있는데 <무서운 印象>은 가난 속에서 한 女人이 不幸해지는 過程이 漸層的으로 그려지고 있다. 男便이 죽어서 悲劇이 發端되고 아들이 죽어 悲劇이 展開되며 女人마저 죽음으로써 極에 達하는 것이다. 이러한 悲劇이 論理性을 갖고 上昇的으로 展開되기 때문에 讀者에게 큰 感動을 주고 있다. <紅焔>은 中國人 地主와 主人公과의 葛藤의 연속에 의해 事件을 漸層的으로 發展시키고 있다. 殷가에게 딸을 빼앗기는, 病들어 누운 아내를 爲해 딸을 만나게 해 달라고 殷가에게 애원하다 거절당하는, 그로 因하여 아내가 죽는 殷가의 집에 불을 지르고 殷가를 도끼로 죽이는 段階로 그 葛藤이 서로 因果關係를 갖고 上昇的으로 처리되어 긴장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 作品은 發表當時 상당한 反響을 불러 일으켰다. 金岸曙³³⁾와 金起林³⁴⁾이 격찬했고 沈熏³⁵⁾은 映畫化하려고까지 했다.

이렇게 展開되던 曙海作品이 <葛藤>에서부터 變化를 가져왔다. 우선 급격한 템포로 展開되던 事件의 흐름이 鈍化된다. 以前의 作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幻想이나 空想 場面이 거의 없어진다. 다시 말하면 個性이 없어지는 同時에 寫實主義 方法을 指向하고 있다. 曙海를 리얼리스트 作家란 말로 칭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게 된다.

모래땅은 물기운이 벌써 빠져서 싹싹 마르고 굳고 오복한 데는 그저 빗물이 피이어서 반짝거린다. 구불구불하고 축축한 산길을 휘돌아오른 산돌이는 쓰러진 나무등걸에 걸터 앉았다. -中略- 이따금 울울한 소나무 끝을 스치는 바람소리는 시원히 들려와 숲속은 고요하였다.

- <그믐밤>에서 -

註： 33) 紅焔을 읽고서 (東亞日報, 1931.9.1)

34) 文芸時評 (三千里 1931.9.1)

35) 紅焔 映畫化 其他 (東光 (38) 1932.10.1)

後期作品中 構成이 잘 된 作品은 <젊은 시절의 로맨스>와 <누이동생을 따라>라 할 수 있는데 <젊은 시절의 로맨스>는 한 女人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거듭됨에 따라 愛情의 濃渡가 깊어지는 上昇的인 手法을 쓰고 있다. 그 上昇的인 事件이 外部로 突出한 것이 아니라 靜的인 霧圍氣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特徵이다. 汽車에서 女人을 만나 好感을 느끼는 데서 事件이 發端, 公園에서 女人을 만나 好感을 愛情으로 發展시키고 病院에서 女人을 만나 사랑이 깊어져 煩悶하고 汽車에서 女人을 만나 아름다움이 가신 모습에 실망을 하며 戀情은 憐憫의 情으로 變質된다. <누이동생을 따라>도 한 男者의 不幸을 上昇的으로 처리하고 있다. 어머니가 죽음으로서 悲劇이 發端. 계모의 폭행으로 盲人이 되어 悲劇이 展開, 不意의 事故로 다리병신이 되어 悲劇이 深化, 애타게 찾던 누이동생의 죽음으로 悲劇은 절정에 이르고 主人公의 夢은 挫折, 主人公의 죽음으로서 悲劇은 끝난다.

結局 曙海의 作品은 後期에 와서 비로소 必然的인 構成을 展開하고 平面性을 克服하려는 傾向이 깊어졌다고 볼 수 있다.

曙海作品中 作中人物들이 가난과 싸우는 技法³⁶⁾에서도 構成의 重要한 部分을 찾아하게 된다. 曙海와 가난의 관계는 여러번 反復됐기에 여기서는 피하기로 하고 가난을 克服하는 두 가지 方法만을 言及한다면 첫째는 “삶의 길”로서 새로운 職業을 구하거나 日帝에 抗拒하는 길이고 둘째는 테러리즘 혹은 “죽음의 길”을 擇하는 手法을 使用했다.

曙海小説은 單調로운 構成形式을 取해서 現實的 時間의 順序로 여러 問題들을 進行시키고 있다. 現在 이야기에서 過去 이야기로 다시 現在의 이야기로 환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大體로 時間의 進行을 構成의 밑천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事件을 立體的으로 構成하지 못하고 平面的으로 展開시킨다. 時間의 順序로 進行시키는 것은 當장은 가장 單調로운 方法이라고 評할 수 있다. 單純하기 때문에 그의 小説의 스토리를 理解하기는 쉬우나 그 대신 緊張感이 없어지고 構成美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曙海는 現實에서 소재를 끌어다가 完全히 消化하고 料理해서 다시 再構成하는 過程이 未熟하다. 小説의 創作技術이 未熟하다고 하겠다. 作家가 먼저 흥분하기 때문에 クライ막스의 迫眞力이 모자라다. 小説은 원래 クライ막스에서 절정을 이루어 人物의 性格이 가장 劇的으로 表出되고 강한 主題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曙海作品에서는 クライ막스 以前에 人物의 心理나 對話를 통해 主題意識을 모두 表出하기 때문에 クライ막스의 緊張感이 부족하다는 金東仁의 指摘³⁷⁾처럼 類似한 素材에 類似한 스토리를 쓰는 이 모든 것이 曙海小説을 辟 單純하고 單調롭게

註: 36) 金基鉉: 前掲書, P 817

37) 金東仁: 韓國近代小説考 「東仁全集」 ⑧ 所收, 弘字出版社, 1964, P 597

만드는 結論이 되는 것이다. 아뭏든 構成面에서만 評한다면, 藝術作品으로서의 構成의 多樣性を 잃어버린 結果로 되는 것이다. 結局 이 單調로운 構成法은 時代的인 狀況과 自己體驗의 窮乏에서 自己를 表現하고 民族的인 文學으로 귀결시키려는 立場이었다.

4. 文 體

文體란 作家의 美的理想에 적합하며 個性이 잘 反映된 一定한 構造의 文章이다. 38)

曙海作品의 文體는 다음 네가지의 特徵으로 要約할 수 있다.

첫째, 直接話法의 書簡體를 取한 것이다. 書簡體는 편지로서 독자적이고 일방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의 心理와 狀況을 진술함에 유리한 立場을 갖게 되는데 <餞迓辭>와 <脱出記>에서 그 機能을 심분 발휘하고 있다.

형님

우리 함정도야 어디 거지가 있습니까? 또 할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에는 골목골목이 거지여서 나같이 털벗은 사람은 괜찮지만 양복조각이나 입은 신사는 그 거지 성화에 길을 잘 수 없습니다.



<脱出記>는 金君에게 自己의 脱家 理由를 밝히는 書簡體의 形式을 文體의 基本으로 삼고 있다. 처음 시작부터가 편지 形式이다.

김군! 수삼차 편지는 반갑게 받았다. 그러나 한번도 회답치 못하였다. 물론 군의 충정에는 나도 감사를 드리지만 그 충정을 나는 받을 수 없다.

- 박군! 나는 군의 脱家を 찬성할 수 없다. 음험한 이역에 늙은 어머니와 어린 처자를 버리고 나선 군의 행동을 나는 찬성할 수 없다.

曙海의 書簡體 小説은 그의 文學的 表現의 여기 저기서 發見되는 1인칭 요소가 가장 집중적으로 反映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曙海에 있어 가장 접근하기가 용이한, 가장 친근한 小説 양식이었던 것이다.

<脱出記>는 이 書簡體의 形式으로서 일단은 成功된 作品이라고 評할 수 있다. 그는 以外에도 여러 作品에서 部分的으로 書簡體를 利用하는 바 이는 그가 劇的인

註 : 38) 李作模 : 文體論, 宣明文化社, 1973. P 53

體驗에서 얻은 곤경의 狀況이 實感나게 서술되고 있다. 그는 自身の 불우한 처지와 그에 對한 心理 사정을 明白히 부각시키는데 主力하면서 客觀的 事實로서의 新奇와 主觀的 反應을 自然스럽게 용해시키는 方法으로 이 方式을 選擇한 것이다.

曙海는 이렇듯 書簡體를 통해서 話者의 狀況을 전달하는데 直接的인 效果를 거두는 매력을 選擇했던 것이다.

直接活法은 小說 敘述上 地文과 함께 삽입되는 對話로 이름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일방적 커뮤니케이션 形態를 띠고 있는 書簡體에서 使用되었다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그것은 이 作家의 書簡體에 二重構造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편지체 일변도의 文章이 초래하는 지리함, 요설스러움을 문득문득 차단시킨다. 즉 서술위주의 文章이 초래하기 쉬운 感情的 지루함을 해소시켜 주고 있다.

「이 이는 ××유치원에 계신 정인숙씨? 하는 김군의 소개로 인숙이를 본 뒤로 나는 맘에 끌렸습니다. 그 뒤에 나는 김군을 만나서

“여보게, 그 인숙씨가 그저 서울있나?” 하였더니 “왜 자네 생각 있나? 둘이 단란한 가정을 이루도록 내가 중매합세” 하고 김군은 웃었습니다.

-〈餓涎辭〉에서-

이는 對話體 小說인 듯하나 主人公이 故鄉의 兄에게 보낸 편지다. 直接話法을 使用해서 主人公의 음울한 社會經驗을 讀者들에게 感覺的 變化를 새롭게 해줘서 신성한 느낌을 갖게 했다. 또한 直接話法에 文章의 現在化로 실지 讀者 自身이 하고 있는 現在進行으로 讀者를 유도하고 있다.

둘째로는 그의 全作品을 통한 울음의 文體 使用이다. 그의 文學에서 人間의 따듯한 情이 描寫되지 않은 作品이 없고 눈물이 登場하지 않는 境遇도 드물다. 구수텅텅한 人情과 가슴 속에 서리서리 맺혀있는 설움은 바로 古代로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 文學의 根幹이 되는 要素인 것이다. 연약한 人間的인 눈물, 참회와 패배와 서러움의 눈물이 大部分을 이루고 있는데 세련감과 굳건함을 유발하기 爲한 現實 개혁적인 理念의 表出로서 行動 以前의 눈물을 그리고 있다. 눈물과 울음은 果然 曙海의 全作品에 通하고 있는가? 하는 問題는 한 치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곳곳에 울음소리며 사방에 눈물자국이다. 즉 이 作家의 小說에 있어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小說의 轉機에 반드시 눈물과 울음이 登場한다. 눈물과 울음을 끌어드려 韓國人의 未發達된 정서구조를 자극하고 융통성 있는 自由를 갈구했던 것인지 모른다.

“어영어영... 죽여주더라도... 에구... 학범어미를... 혼변 만보 ...보”
그는 꺾꺾 목메어 운다.

-〈暴君〉에서-

아! 나의 식구도 그럴 것을 생각할 때면 자연히 흐르는 눈물과 뿌적뿌적 찢기는 가슴을 덮쳐 잡는다.

-〈脱出記〉에서-

“박돌아! 어서 가거라 내달이면 내가 온다.”

“나는 아버지가 내 말만 들었으면 선생님과
하면서 또 운다. 운심이기도 또 울었다.”

-〈故國〉에서-

“응, 이거 먹어라. 우지 마라.”

주인 마누라는 꺼먼 엇몽치를 만득의 가슴에 안겼다.

“으응 흥... 에구.....”

만득이는 모두 귀찮다는 듯이 발버둥을 치면서 그저 울었다.

-〈그믐밤〉에서-

그러나 그 때는 벌써 아내가 문 밖으로 나가고 없었다. 나는 마루에 쓰러져 혼자 울었다. 소리 없이 가슴을 치면서 울었다.

-〈八個月〉에서-

나는 형님의 말씀이 그치기 전에 형님 앞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네 친형이 아니라구.....”

-〈餓逐辭〉에서-

“네가 왜 울었니?”

하고 끊어 올라오는 가래를 억제하십니다. 나는 어머니를 보니 더욱 설어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훌훌 느껴 울었습니다.

-〈누이동생을 따라〉에서-

“차가 떠날 때 어멈은 울던데.....”

나는 혼잣말처럼 뇌었다.

-〈葛藤〉에서-

그러나 여기서 주시해야 할 것은 曙海의 눈물과 울음은 이상하게도 끈적끈적하거나 질퍽한 感情을 수반하지 않고 作家 스스로는 그렇듯 빈번히 서러움을 強調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한 단절감과 세련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의

文體는 <葛藤>以後에 別로 쓰여지지 않고 있어 그냥 울음의 文體와 관련시킬 수 밖에 없다.

셋째, 擬聲語와 擬態語를 적절히 使用함으로써 文章을 寫實的이고도 生動感이 넘치게 만드는 效果를 거두었다. 위에서 言及한 直接話法에 文章의 現在形의 迫進力 있는 構成을 爲해 번번한 擬聲語, 擬態語를 使用하고 있는 것이다.

서까래가 보이는 천장에는 까맣게 그을은 거미줄이 얼키설키 서리고 년들년들 달렸다.

- <朴들의 죽음>에서 -

그 아들의 주린 울음이 뼈에 짜릿짜릿 사무쳐서 견딜 수 없었다.

- <棄兒>에서 -

문을 꼭 걸고 가슴을 치고 이글이글 구르면서 소리없는 뜨거운 눈물은 한껏 뿔었다.

- <白琴>에서 -

빨건 물속에서는 시퍼런 칼을 든 악마들이 불끈불끈 나타나서 온 식구들을 쿡쿡 찌른다.

- <飢餓와 殺戮>에서 -

빗방울은 뚝뚝-뚝뚝 먼지 구덩이 된 자리 위에 떨어진다. 그 울음과 빈대피가 얼룩얼룩한 벽은 새어 내리는 구름발 같다. 우우 하고 불어오는 바람에 물리는 빗발은 간간이 썩-하고 서창을 들이쳤다.

- <큰물진 뒤>에서 -

저편에서 슬금슬금 기어 오는 커단 머리였다. 침에는 저편에 수수깡 울타리 같기도 하고 짙더미 같기도 한 어두운 구석에서 뚱긋이 내밀더니 점점 가까와질수록.....

- <그믐밤>에서 -

그 바람에 슬근슬근 가던 그 그림자는 휘 돌아서서 손에 들었던 보자기를 개 앞에 던졌다. 보자기는 터져서 동글동글한 것이 우루루 쏟아졌다.

- <紅焰>에서 -

홍글땡글하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서 오줌을 쉬쉬 쏟아가 그 집 늙은 부인한테 욕을 툭툭이 먹었지만 그래도 빙글빙글 웃고 골목길을 걸었다.

- <暴君>에서 -

이처럼 曙海는 擬聲語와 擬態語가 文章에 生命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自身の 文學語로 使用함으로써 獨特한 스타일을 創造해서 우리말에 많이 分布되어 있는 이것을 最大限으로 利用 韓國語의 特有性으로 찾아냈다고 하겠다.

그리고 作品을 리얼하게 끌어가고 進行 속도도 빠르게 한다. 또한 作中人物들과의 葛藤과 對立을 極大化시키기도 한다. 擬聲語보다는 擬態語가 더 使用된 것은 事件의 現場性 집착에 입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네째로, 作品의 背景에 따라 地方語를 使用했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서울을 舞臺로 한 作品에서는 正確한 標準語를 驅使하지만 間島나 農村을 背景으로 한 作品에서는 사투리를 使用하고 있다.

<朴들의 죽음> <暴君> <底流>等에서는 北方 사투리를 使用함으로써 作中人物의 個性을 드러내고 作品이 氛圍氣를 助成하는 手法을 보여주고 있다. <그믐밤>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모두 標準語를 使用하고 있으나 삼돌이만 사투리로 말함으로써 삼돌이의 愚昧한 性格을 表現하고 있다.

만일 이들 作品에서 사투리를 써서 地方語로서의 特色을 나타내야 할 자리에 標準語를 使用했다면 그 作品의 效果는 훨씬 半減되었을 것이다. 이 사투리의 大部分은 함경도 방언이다. 곳곳에 투박성이 스며들어 있다. 얼른 情感이 안드는 통명스럽고 無知한 말씨가 많이 나오고 있다.

시방 우리 놈아두 공부를 함매 하구 성화를 대구 서울 가서 땡기더니 쟤년엔 만쎄지 댁쎄지 부르고 시방 징역을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되겠소! 다 운이 있는 전데…….

— <底流>에서 —

以上에서 본 것처럼 曙海의 文體意識은 書簡體의 二重的 構造로서의 現在法으로 現實感을 讀者에게 주면서 울음의 文體로 擬聲語, 擬態語를 使用, 게다가 함경도 따위의 方言을 使用함으로써 가장 朝鮮的이고 庶民的인, 鄉土的인 文學思想에서 연결된 것으로 評價할 수 있다. 또한 그의 人道主義에 근간을 둔 民族主義的인 文學性을 發見할 수가 있는 것이다.

5. 視 点

小説은 저절로 展開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 이야기 되기 때문에 어떤 立場에서 傳達되는 것인가는 매우 重要的 問題이다.

李在銑에 의한 韓國小説의 視點은 세가지 類型³⁹⁾으로 나누고 있는데 叙述者 主觀的인 3인칭 小説, 1인칭 小説, 叙述者 退行的인 3인칭 小説등 셋인데 第一類型은 叙述者가 作品 속에서 報告的 技法이 우세하며 第二類型은 叙述者가 곧 作品

註 : 39) 李在銑 : 韓國短篇小説研究, 一潮閣, 1975, P 182

의 주인공이다. 따라서 세 가지 類型 中 가장 報告的 要素가 强하다. 第三型은 叙述者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場面描寫的인 性格에 强한 形態이다.

以上の 세 가지 形으로 봤을 때 曙海의 作品들은 1인칭 小説에서부터 점차 叙述者 主觀的 3인칭 小説로 發展하여 第三類型인 叙述者 退行的 3인칭으로 접어 든다. 曙海小説 視點의 主流를 이루게 되는 3인칭 全知的 視點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인칭 視點도 상당수를 이루고 있는데 1인칭 小説은 아래의 作品들에서 보여진다.

나는 그렇게 아내를 의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밋게도 생각하였다. 아내는 아무런 말없이 어색하게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 씩씩하다가 밖으로 나간다.

- 〈脱出記〉에서 -

나는 형님의 말씀이 그치기 전에 형님 앞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 〈餓逐辭〉에서 -

나는 R형과 함께 남문 밖 시냇가로 나가면서 이런 말을 꺼내었다.

- 〈白琴〉에서 -

나는 대답하고 자리에 누웠다.

- 〈落魄不過〉에서 -

내가 동대문 밖 어떤 문에 잡지사에 있을 때였다.

- 〈東大門〉에서 -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걸어가다가 너무도 어이가 없는 생활을 웃어버렸다.

- 〈八個月〉에서 -

이것들은 主人公이 自己 自身の 이야기를 하고 있다. 作中人物이 自己 自身の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脱出記〉와 〈餓逐辭〉는 書簡體의 形式을 取하고 있음은 文體에서도 言及한 바 있다.

作中人物이 自己의 일을 이야기 할 때 大體로 讀者와 作中人物의 거리는 좁혀 지고 新近感을 주게 되는 것이다. 特히 作中人物이 自己의 苦悶을 呼訴하고 絶叫할 때 讀者는 그 反應이 크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書簡體의 경우 더욱 그러 한데 〈脱出記〉의 <나>가 脱出하게 된 動機나 〈餓逐辭〉에서 <변기운>이 脱家의 動機는 어찌면 전혀 說得力이 없는 것이다. 讀者들은 그 文章이 주는 雰圍氣와 呼訴力 때문에 設得당하고 있다. 또한 自己의 民族主義的 文學을 表하는데 直線的이고 노골적인 效果를 얻을 수 있다.

叙述者 主觀的 3인칭 小説은 <무서운 印象>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轉

機>等이다. 그 中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의 한 文章을 물어 본다.

그도 잡지를 집어치운 후로 별로 나를 찾지 않았다.

위의 두 가지 類型은 體驗과 목격한 事實을 作品化한 것으로 그 空間的 背景이 大體로 간도와 회령 그리고 서울이다. 그러나 이러한 空間的 背景은 視點과 直接 關係가 없다. 一般的으로 曙海의 作品들은 體驗을 기초로 한 것이기에 自己 고백적 요소가 強하므로 1인칭 小說과 敘述的 主觀的 3인칭 小說이 많은 것 같으나 第三類型에 속하는 作品들이 많은 것으로 曙海가 自身の 體驗을 여과시키고 하나의 作品化하기 爲해 애쓴 事實을 알 수 있다.

敘述者 退行的 3인칭 小說은 <그믐밤>과 <底流>와 같은 農村的 舞臺와 <紅焰>이나 <暴君> <큰 물 진뒤>와 같은 作品들인데 여기서는 大體로 정경 묘사체를 많이 使用하고 있다.

숲 속에 흐르는 별은 자취를 감추고 녹녹한 그늘이 숲을 덮었다. 바람이 스치는 때마다 잎들은 우줄우줄 춤을 췄다.

불빛이 희미한 창 속에서 어린애 울음이 들렸다. 창에 비친 불빛에 누릿한 물은 흙마루를 지나 문턱을 넘었다.

— <그믐밤>에서 —

— <큰물진뒤>에서 —

이 3인칭 小說에서도 우리가 받는 印象은 貧怒에 찬 絶叫과 呼訴의 목소리로 들게 된다. 그 어느 것 하나도 당당한 것이 없다. 曙海小說 視點의 어느 것을 擇하더라도 그 傳達方法에 있어서 呼訴와 絶叫을 적절하게 채용하여 깊은 印象을 주고 있다.

結局 曙海作品의 視點은 그 主題의 흐름을 적절히 表現하기 위하여 主題表出과 構成面에서의 缺乏을 文體意識과 더불어 상당한 特異性을 갖추려고 했다고 보겠다.

Ⅳ . 結 語

以上에서 曙海 崔鶴松 文學을 體驗文學의 側面에서 考察하면서 曙海文學의 社會性을 重視 人道主義的 民族主義文學의 方向으로 論했다.

曙海作品에서 처음부터 프로意識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다만 貧窮에 시달리다 보니까 反抗의 要素를 內色하게 되었고 카프組織에 참여했으면서도 積極的이지 않았다. 또한 貧窮文學도 프로文學과 相通되는 것이어서 혹 프로作家로 認識할 수도 있었으나 그는 始終 貧窮의 問題 追求에 그쳤다. 즉 그의 間島文學에서도 極限的인 貧窮의 世界만을 作品化 하는데 主力한 것일 뿐이다.

그러기에 1929年 카프 脫退 前後로 本格的인 人道主義的 傾向으로 바꾸지만 事實 원래부터 그 根源은 人道主義라 할 수 있었다. 社會에 대한 反抗과 詛咒는 家族愛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人間愛로 그 範圍가 넓어진다. 現實告發의 精神 속에 人間을 肯定的으로 보는 이 人道主義的 傾向이 곧 抗日文學으로서의 民族文學과 相通하는 것이다.

曙海文學에는 日帝의 敗亡과 朝國光復에 대한 信念, 念願이 強烈하게 형상처리된다. 抗日精神이 流浪하는 農民을 通하여 植民地 營農政策을 비판했다. 不條理를 告發하고 있다. 이러한 面을 프로文學的 性格으로 처리하기 보다는 植民地 狀況에서의 民族問題를 취급했다는 데서 그 價値를 認定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의 文學的 態度는 單純한 現實告發의 次元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압박받는 民族의 설음과 그 抵抗意識을 民族的 次元에서 형상화 했고 그러한 狀況에서의 脫出을 끊임없이 追求했기에 民族文學으로서의 昇華가 可能했던 것이다.

曙海는 社會와 人間의 問題를 主題로 삼고 下層民과 가난한 小市民들을 主人公로 登場시키되 男子의 視線을 通해 社會의 不條理를 파헤쳤다. 또한 現實打開의 方法으로 幻想의 手法을 쓰고 울음의 文體로 울분을 달래는 등 曙海만의 技法을 쓴 作家라는 점에서 그 文學的 意義를 지닌다. 曙海는 植民地 時代를 가장 뼈저리게 살다 간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作品의 缺陷에도 불구하고 社會的으로 가장 강한 設服力을 가졌던 民族主義 文學人이었던 것이다. 曙海의 民族主義는 곧 抗日精神과 通한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民族主義作家로서 韓國新文學 出發期 1920年代에 있어서 선구적인 文學史的 位置를 차지했다고 評價된다.

◆ 参 考 文 献 ◆

- 郭根：曙海 崔鶴松 研究。 建國大碩士論文。 1976。
國語國文學會：現代小說研究。 正音社。 1982。
- 金起林：文芸時評。 三千里。 1931.9。
金基鎮：丙寅歲暮文壇 總評。 中外日報。 1926.12.4。
文芸時評。 朝鮮之光。 1926.12。
文壇 最近의 一傾向。 開闢。 1925.7。
- 金基鉉：韓國文學論攷。 一潮閣。 1972。
崔曙海의 初期作品。 文學斗 知性。 1973.11。
崔曙海의 傳記的 考察 (1)。 高大論集。 1975。
間島時節의 崔曙海。 우리文學 研究。 1976。
- 金臺俊：朝鮮小說發達史。 三千里。 1936.1。
金東仁：朝鮮近代小說考(東仁全集8)，弘字出版社。 1964。
小說作家로서의 曙海(東仁全集 10)，弘字出版社。 1964。
作家四人。 每日申報。 1931.1.8。
- 金炳翼：韓國文壇史。 一志社。 1980。
- 金岸曙：「紅焰」을 읽고서。 東亞日報。 1931.9.1。
- 金永和：現代韓國小說의 構造。 泰光文化社。 1977。
金禮泰：曙海와 그의 作品世界。 淑明女大。 1974。
- 金容誠：韓國現代文學史探訪。 國民書館。 1973。
- 金字鐘：崔曙海研究。 李崇寧 壽論叢。 1968。
韓國現代小說史。 宣明文化社。 1968。
韓國現代文學史7。 宣明文化社。 1974。
作家論。 同和文化社。 1978。
- 金禹昌：個人斗 社會。 季刊誌 文學斗 知性通卷 25號
- 金允植, 김현：韓國文學史。 民音社。 1973。
- 金允植：韓國文學史論攷。 法文社。 1974。
近代韓國文學研究。 一志社。 1973。
韓國近代文芸批評史 研究。 한일문고。 1973。
- 金柱演：울음의 文體斗 直接話法。 文學思想(26) 1974.11。
- 金學東：韓國文學의 比較文學的 研究。 一潮閣。 1974。

- 南又薰：曙海의 逸話. 三千里 33. 1932.12.
- 東亞日報社說：貧民에게로 가라. 1923.10.20.
- 閔丙徽：抱石과 曙海. 三千里. 1935.1.
- 朴祥燁：曙海와 그의 劇的生涯. 朝鮮文壇 4. 1935.8.
感傷의 七月. 每日申報. 1935.7.14-29.
- 朴英熙：初創期의 文壇側面史. 現代文學. 1960.4.
新傾向派文學과 그 文壇的 地位. 開闢. 1925.12.
鬭爭期에 있는 文芸批評家의 態度. 朝鮮之光. 1927.1.
文芸時評. 朝鮮日報. 1929.3.24-26.
- 朴榮澤·崔元植：韓國近代文學史論. 한길사. 1982.
- 朴鍾和：哭崔曙海. 東亞日報. 1932.7.20.
- 朴花城：貧困과 苦悶한 崔曙海. 現代文學. 1962.12.
- 方作根：文壇交友錄. 文芸. 1950.3.
二月小說評. 朝鮮文壇. 1926.3.
朝鮮文壇의 回顧. 月刊文學. 1968.12-1969.2.
文士들의 이모양 저모양. 朝鮮文壇. 1925.2.
- 白鐵：朝鮮新聞學思潮史. 新兵文化社. 1968.
한발 앞선 孤獨의 意味. 文學思想. 1974.11.
- 白鐵·李秉岐：國文學全史. 新丘文化社. 1957.
- 曙海：文芸時感. 朝鮮日報. 1928.1.8.
文壇時感. 現代評論. 1927.7.
?!?!?!?. 朝鮮文壇 (7). 1925.4.
熱日苦語 (3). 東亞日報. 1929.7.4.
- 申東旭：우리이야기 文學의 아름다움. 韓研叢書 44. 1981.
- 申春造：韓國貧窮文學의 두 樣相. 高大論文. 1973.
- 沈晶變：傳說의 文學的 構造. 文學과 知性 27. 1977.2.
- 沈 熈：「紅焰」映畫化 基他. 東光 38. 1932.3.
- 安含光：崔曙海論. 朝鮮作家同盟出版社. 1956.
- 廉想涉：個性과 藝術. 開闢 22. 1922.4.
- 柳在燁：崔曙海研究. 東國大碩士論文. 1977.
- 尹基懸：1927年 文壇의 總決算. 朝鮮之光. 1928.1.
- 尹柄曹：現代作家論. 二友出版社. 1978.
反逆과 熱愛의 作家. 女花. 1960.3.

- 尹弘老：韓國近代小說研究。一潮閣。1981。
- 李光洙：前 朝鮮文壇 追憶談。朝鮮文壇。1931.8。
우리 文芸의 方向。朝鮮文壇。1925.11。
- 李基白：韓國史新論。一潮閣。1977。
- 李明溫：無骨好人崔曙海。希望。1962.2。
- 李丙烈：曙海崔鶴松研究。高大碩士論文。1980。
- 李商燮：文學研究의 方法。探求當。1975。
- 李仁模：文體論。宣明文化社。1973。
- 李承萬：“鶴”이 소나무를 잃었구나。月刊中央。1972.6。
- 李在銑：韓國短篇小說研究。一潮閣。1975。
- 李哲範：韓國新文學大系(中)。耕學社。1972。
- 李泰俊：嗚呼曙海兄！。東亞日報。1932.7.18。
- 李海聲：새 資料를 통해 본 崔曙海의 生涯。文學思想。1974.11。
- 林鍾國：韓國文學의 社會史。正音社。1974。
- 任軒永：韓國近代小說의 探究。汎友社。1974。
- 林 和：朝鮮文學史論序說。朝鮮中央日報 1935.11.12。
- 田榮澤：曙海의 藝術과 生涯。三千里。1934.8。
- 鄭漢淑：小說技術論。高大出版部。1973。
小說文章論。高大出版部。1973。
- 曹南鉉：日帝下의 知識人 文學。平民社。1978。
- 趙演鉉：韓國現代文學史。成文閣。1969。
- 趙鎮基：崔曙作品論攷。慶南大 論文集。1976。
- 蔡 燾：1920年代 韓國作家研究。一志社。1976。
貧窮文學에서의 脫出記。文學思想(26)。1974.11。
- 河東鎬外：處女作 주변 - 崔曙海。新亞日報。1967.3.25。
- 玄吉彥：羅稻香小說의 - 考察。濟大論文。1981。
- 玄鎮健：新春小說漫評。開關。1926.2。
- 洪以燮：1920年代 殖民地的 現實。文學과 知性通卷七號。1972.3。
韓國民族主義의 歷史的 性格(陳德奎 撰：韓國民族主義)
韓國精神史序說。延大出版部。1975。
1930年代初의 農村과 沈燾文學。創作과 批評七卷 3號。1972。
- 洪泰植：友日文芸運動。三省出版社。1969。

◆ 附錄： 作品年譜 ◆

| 發表年代 | 區分 | 作 品 名 | 發表誌(紙) | 參 考 |
|----------|-----|-------------|---------|-------------------------------|
| 1918. 3. | 詩 | 雨後庭園의 月光 | 學之光 15호 | 散文 詩. 曙海 最初의 作品 |
| | " | 秋郊의 暮色 | " | " |
| | " | 半島青年에게 | " | " |
| 6. | 散 文 | 春曉雪景 | 青 春 14 | 読者文芸 佳作 |
| | " | 海坪의 一夜 | 青 春 15 | " 當選 |
| 1923. 6. | 時 調 | 青郊에서 | 東 亞 日 報 | "春郊"라고도 함. |
| 7. | 隨 筆 | 孤寂 | " | |
| 9. | 詩 | 自信 | 北鮮日日新聞 | 內容未詳(自身)이라고도 해서 曙海란 號가 아예 사용됨 |
| 9. | 童 話 | 누구의 便紙 | 新 生 命 | |
| 10. | " | 平和와 임금 | " | |
| 10. | " | 토끼와 葡萄 | 新 生 | 번역 |
| 1924. 1. | 短 篇 | 吐血 | 東 亞 日 報 | |
| 10. | " | 故國 | 朝鮮文壇 1호 | 推薦小説, 2月作 |
| 11. | " | 梅月 | | 創作集「血痕」에 수록 |
| 10. | 隨 筆 | 旅程에서 | 朝 鮮 文 壇 | 選外佳作 |
| 12. | 評 論 | 近代 露西亞文學 概觀 | " | 生田長江外 |
| 1925. 2. | 短 篇 | 拾參圓 | 朝鮮文壇 5호 | |
| 3. | " | 脱出記 | " 6호 | |
| 4. | " | 살려는 사람들 | " 7호 | 掲載禁止. 序文만 살림 |
| 4. | " | 鄉愁 | 東 亞 日 報 | 4.6 - 4.13. |
| 5. | " | 차들의 죽음. | 朝 鮮 文 壇 | 3月下旬作 |
| 6. | " | 飢餓와 殺戮 | " | 5月十七日作 |
| 6. | " | 彷徨 | 時 代 日 報 | |
| 7. | " | 寶石半指 | 時 代 革 新 | 小品 |
| 9. | " | 棄兒 | 黎 明 | 七月作 |
| 12. | " | 큰물진 뒤 | 開 關 | |
| 3. | 隨 筆 | 그리운 어린 때 | 朝鮮文壇 6호 | |
| 4. | 日 記 | ? ! ? ! ? ! | " 7호 | |

| 發表年代 | 區分 | 作 品 名 | 發表誌(紙) | 參 考 |
|----------|-----|--------------------------|-------------|--------------------------------|
| 1925. 8. | 隨 筆 | 여름과 물 | 朝鮮文壇 12호 | |
| 10. | " | 海雲臺 | 新 民 | |
| 11. | " | 病友曹雲 | 朝 鮮 文 壇 | |
| 11. | " | 血痕 | " | 創作集〈血痕〉의 序文 |
| 1. | 評 論 | 近代 英米文學 概觀 | 朝鮮文壇 4호 | 近代文芸 十二講. 縮訳 |
| 2. | " | 近代 獨逸文學 概觀 | " 5호 | " |
| 7. | " | 全 生命의 要求는 아니다. 나의 연애관 | " 10호 | |
| 3. | 詩 | 시골 少年의 부른 노래 | 東 亞 日 報 | |
| 7. | 時 調 | 偶吟 | " | |
| 12. | 詩 | 세치녀 | 文 明 1 호 | 散文時 |
| 1926. 1. | 短 篇 | 暴君 | 開 關 | |
| 1. | " | 그 刹邦 | 時 代 日 報 | 未完 |
| 1. | " | 五圓七十五錢 | 東 亞 日 報 | 1925.12.24 作 1.1-1.5 |
| 1. | " | 설날밤 | 新 民 9 호 | 1925.11. 作 |
| 2. | " | 白琴 | " 10 호 | 1925.12. 作 |
| 2. | " | 의사 | 文 芸 運 動 | 1925.11.24. 朝作 |
| 2. | " | 笑殺 | 飯 面 | |
| 3. | " | 해돋이 | 新 民 11 호 | 1924.11.15. 作 |
| 5. | " | 그믐밤 | " 13 호 | |
| 6. | " | 금붕어 | 靈 臺 17 호 | |
| 7. | " | 누가 亡하나 | 新 民 15 호 | 6.29 作 |
| 7. | " | 만두 | 時 代 日 報 | 1931.9. 再發表 |
| 8. | " | 農村夜話 | 東 光 4 호 | 掲載禁止 |
| 9. | " | 八個月 | " 5 호 | 7. 20. 作 |
| 10. | " | 底流 | 新 民 18 호 | 6. 23. 作 |
| 11. | " | 異域 冤魂 | 東 光 7 호 | 10. 3. 作 |
| 11. | " | 東大門 | 文 芸 時 代 1 호 | 10. 8. 作 |
| 11. | " | 紅恨綠愁 | 每 日 申 報 | 連作小説, 小説題目〈남은 꿈〉 曙海外 五人 六回로 |
| 12. | " | 무서운 印象 | 東 光 8 호 | 11.3. 作 |
| 12. | " | 미치광이 | | 「血痕」에 수록 |
| 12. | " | 돌아가는 날 | 新 社 會 | |

| 發表年代 | 區分 | 作 品 名 | 發表紙(紙) | 參 考 |
|----------|------|-----------------|-----------|------------------------------|
| 1926. 9. | 短 篇 | 아내의 자는 얼굴 | 朝 鮮 之 光 | |
| 4. | 隨 筆 | 흐르는 이의 군소리 | 朝 鮮 文 壇 | 1935.5 <四海公論>에 서는 小說로 再發表 |
| 5. | " | 담요 | " | |
| 6. | " | 連珠瘡과 毒蛇 | 東 亞 日 報 | |
| 7. | " | 呻吟聲 | " | 7.10-7.13. |
| 7. | " | 雲과 人生 | 假 面 | |
| 8. | " | 雙浦遊記 | 新 民 16호 | |
| 11. | " | 天才와 凡才 | 文芸時代 1호 | |
| 1. | 評 論 | 감과배 | 假 面 | |
| 8. | " | 七八月の 小說 | 東 亞 日 報 | 8.7부터 4回 연재 |
| 1927 .1. | 短 篇 | 취죽인 뒤 | 每 日 申 報 | |
| 1. | " | 紅焰 | 朝 鮮 文 壇 | 1926.12. 作 |
| 1. | " | 餓逐辭 | 東 光 9호 | |
| 1. | " | 序慕 | 東 亞 日 報 | 1.11-1.15. |
| 1. | " | 落魄不遇 | 文 芸 時 代 | |
| 2. | " | 가난한 아내 | 朝 鮮 之 光 | 未完 |
| 5. | " | 二重 | 現 代 評 論 | 掲載禁止 |
| 1. | 隨 筆 | 미덥지 못한 마음 | 朝 鮮 文 壇 | |
| 1. | " | 雜談 | 文 芸 時 代 | |
| 8. | " | 여름과 나 | 東 光 | |
| 7. | 評 論 | 文壇時感 | 現 代 評 論 | |
| 9. | " | 文芸時感 | " | |
| 11. | " | 朝鮮文學 開拓者 | 中 外 日 報 | 副題 菊初 李人植氏와 그 作品 |
| 12. | " | 데카단의 象徴 | 別 乾 坤 10호 | |
| 1. | 양케이트 | 우리의 감정에서 운러나는 글 | ? | |
| 2.3. | 對 談 | 文士訪問記 | 朝 鮮 文 壇 | |
| 1. | 양케이트 | 文壇沈滯의 原因과 對策 | " | |
| 1928. 1. | 短 筆 | 葛藤 | 新 民 | |
| 4. | 양케이트 | 暴風雨時代 | 東 亞 日 報 | 未完 4.4-4.12. |
| 5.8. | 翻 案 | 사랑의 원수 | 中 外 日 報 | 連載 80 탐정소설 5.16-8.30 |

| 發表年代 | 區分 | 作 品 名 | 發表誌(紙) | 參 考 |
|----------|------|-----------------|-----------|-------------------------------|
| 1928. 8. | 短 篇 | 容身難 (一) | 新 民 | 未完 |
| 10. | " | 夫婦 | 每 日 申 報 | 8 月 作 |
| 4. | 隨 筆 | 城東途 | 朝 鮮 日 報 | |
| 7. | " | 近感 | 東 亞 日 報 | |
| 9. | " | 값없는 생명 | 朝 鮮 日 報 | 德音 (一) |
| 9. | " | 面回謝節 | " | " (二) (三) |
| 9. | " | 수박 | " | " (四) |
| 9. | " | 破約의 悲哀 | " | " (五) (六) (七) |
| 1. | 앙케이트 | 朝鮮을 안 뒤라야 | 朝 鮮 之 光 | |
| 2. | " | 只今까지 잊혀지지 않는 女子 | 別 乾 坤 | |
| 4. | " | 少年小女와 영화극문제 | 新 民 | |
| 12. | " | 各界各士 諸氏-日生活記 | 別 乾 坤 | |
| 1. | 評 論 | 文芸時感 | 朝 鮮 日 報 | 1.8 부터 3 回 |
| 8. | " | 題村 選擇의 必要 | 中 外 日 報 | |
| 1929. 1. | 翻 訳 | 幸福 | 新 民 45 호 | 알슈이바세프 原作. 中島 清氏日訳 曙海 重擇 |
| 1. | 短 篇 | 轉機 | 新 生 4 호 | 1928 作 |
| 1. | " | 먼동이 틀때 | 朝 鮮 日 報 | 1.1-2.26. |
| 2. | " | 人情 | 新 生 5 호 | 1 月 作 |
| 3. | " | 육가락 방광관 | 學 生 | 콩트 |
| 3. | " | 물벼락 | 朝 鮮 日 報 | " |
| 3. | " | 境界線 | 家 聲 | |
| 4. | " | 주인아씨 | 新 生 | |
| 4. | " | 受難 | 學 生 | 未完-崔曙海, 崔承一, 崔獨鶴文壇 三崔氏連作小說 |
| 8. | " | 젊은 시절의 로맨스 | 朝 鮮 日 報 | 連作小說 |
| 12. | " | 無名草 | 新 民 52 호 | |
| 9. | " | 같은 길을 밟는 사람들 | 新 小 說 1 호 | |
| 2. | " | 잊지 못할 사람들 | 新 社 會 | |
| 3. | 隨 筆 | 매화 옛등걸 | 中 外 日 報 | |
| 3. | " | 봄! 봄! 봄! | 新 生 6 호 | |
| 4. | " | 병신의 녀두리 | 朝 鮮 農 民 | |
| 6. | " | 봄을 맞는다. | 學 生 2 호 | |
| 6. | " | 달리소 | 新 生 9 호 | |

| 發表年代 | 區分 | 作 品 名 | 發表誌(紙) | 參 考 |
|------------|------|-------------------------------|---------|---------------------|
| 1929. 6. | 隨 筆 |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 三 千 里 | |
| 8. | " | 어느 곳 風景 | 學 生 5 號 | |
| 8. | " | 가을을 맞으며 | 東 亞 日 報 | |
| 8. | " | 속연한 雨聲 | " | |
| 8. | " | 가을의 마음 | " | |
| 9. | " | 가을 벌레 | ? | |
| 7. | 評 論 | 새해를 마치면서 내가 생각 하는 朝鮮文壇 진흥책 | 別 乾 坤 | |
| 7. | " | 文芸와 時代 | 東 亞 日 報 | 熱日苦語(→) □ 7.2-3 |
| 7. | " | 內容과 技巧 | " | " (三) |
| 7. | " | 學農大衆과 文芸運動 | " | " (四) 7.5-10 |
| 7. | " | 朝鮮의 特殊性 | " | " (九)(十) 8.2-24 |
| 1. | 앙케이트 | 결국은 뺑문제 | 別乾坤 18호 | |
| 1. | " | 나의 소설은 보기 어렵다고 | " | |
| 6. | " |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 三千里 1호 | |
| 10. | 翻譯 | 토끼와 포도넝쿨 | 新 生 | 童話 마태로 原作 |
| 1930. 2. | 短 篇 | 누이동생을 따라 | 新 民 | 曙海 最後의 短篇 |
| 1930. 9. | 長 篇 | 號外時代 | 每 日 新 報 | 310 회 連載 (1930.9.10 |
| 1931. 8. | | | | ~ 31.8.1) |
| 1930. 3. | 隨 筆 | 立春을 맞으며 | 別乾坤 27호 | |
| 6. | " | 新綠과 나 | " 29호 | |
| 8. | " | 模範農村 巡禮 | 每 日 申 報 | 8.19-8.22 |
| 9. | " | 疑問의 그 女子 | 新小說 5호 | |
| 10. | " | 탈 | 新 生 24호 | |
| 7. | 評 價 | 작가가 본 評論家 | 三千里 7호 | |
| 2. | 雜 文 | 줍어본 이야기 | 別 乾 坤 | |
| 5. | " | 紅焰과 脫出記 | 三 千 里 | |
| ? | 小 品 | 산사람의 마음 위로 | 制 乾 坤 | |
| 1931. 11. | 隨 筆 | 깊어가는 가을 | 新 生 | |
| 1. | 雜 文 | 내가 감격한 外國作品 | 三 千 里 | |
| 2. | " | 내가 본 내 얼굴 | 別 乾 坤 | |
| 1932. 4. | 隨 筆 | K和尚의 눈 | 東 方 評 論 | |
| 1926.12.28 | 創作集 | 血痕 | 글 벗 집 | 血痕等 11 作品 |
| 1931. 5.15 | " | 紅焰 | 三 千 里 社 | 紅焰等 3 作品 |

(Abstract)

THE STUDY OF THE SHORT STORIES
OF CHOI SEOHAI

KANG DAI SYUNG

Korean Language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Young Hwa

1. It cannot be found that Seohai's novels included the Pro.¹⁾ Consciousness in his early works, as you know. As he was poverty-stricken, he wrote the resistive elements in his novels. He was not although he took part in the KAPF.²⁾
2. As the Destitution Literature keeps in touch with the Pro. Literature, he studies Problems of the extreme poverty thoroughly. And he just concentrated his effort on composing novels about only the extreme-poverty world.
3. We can say that his novels have the typical humanitarian tendency, about the time he seceded from the KAPE in 1929. The source of his moveles is all humanity, I think. His insubordination and curse resulted from the love of his family, and these turn into the love of humanity for the poor and the lower classes. The humanitarian tendency keeps in touch with the national literature-as an anti-japanese liteature.

4. In his novels we can see the intensive belief and cherished desire for the defeat of Japanese Empire and the Liberation of our Fatherland, Korea. Through the nomadic farmers he criticized the colonial-farming policy, and charged against the irrationality of the times. We'd better acknowledge its value in dealing with the national problems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colonial situation instead of considering them as a typical character or personality of the Proletarian Literature.

5. He chose the subjects of his novels among the social and the poor human beings' problems, and he made the lower classes and the poor petit bourgeois enter on the stage as the leading characters. He tried to make a public disclosure of the social irrationalities through the men's points of interests. As one of the policies of tiding over a difficult actuality he also took the technical skill of the illusion, and through the lamenting style he also tried to control his resentment. That's what is his own unique style that he used to compose his novels. The focus of his technique in writing novels was adjusted on the national literature.

6. His nationalism keeps in touch with the anti-Japanese spirit. He should be rated as one of the leading writers in 1920s, at when the New Korean Literature began, and so he took the leading position of the Korean literary history, I'm sure.

- 1) Pro : proletarian 준말
- 2) KAPF : Korea Artista Proleta Federatio (조선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